

新小說

李鳳彬傳



鐘路京城書館發行

117

Kodak Color Control Patches

© Kodak, 2007 TM: Kodak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리 봉 빈 전

화설대명성화녀간에오관티학동에일위명스잇스니성은리오명은중치니루티잠
영지족으로소년등과하야벼살이리부상셔에이르고가제부요하니평성에그리를것
이업스되다만슬하에일점혈육이업셔미양송히하더니일소는상셔조회에드러갓
더니상이글샤디경이즈녀를멧치니두엇는요하셔니복디주왈일죽히
즈녀를보지못하얏는이다하고물너와부인가씨를디하야황상의하문하심을일으고
숨음을마지아니하니부인이피석티왈이는첩의죄악이지극하옵이라고셔에일넛스
되녀즈니칠거지악이잇스옵이무즈하면바린다하오니이는선영향화를위하옵이라
빌건디군즈는무용하온첩을인연하야루티향화를원치말으시고일죽이타문의숙
녀를취하샤후스를이으시면첩이비록지금죽스와도여한이업슬가하니이다상셔왈
이엇지부인의허물이라하리오만성의명도과구름이오니부인은부즈립슨말씀을외
와나의마음을상히오지말으소서하고위로함을마지아니하니부인이상셔의관후하
심을못느감격하더라일소는부인이일물을어드니공중에오석구름이일하니며일위
선녀니최운을헛치고나려와부인에게절하고왈첩은옥경선녀옴더니우연히상데세득
죄하와인간에니치심이도라갈바를아지못하야부인제의탁고저하오니어엿비녀이
소서하코품안으로들거늘놀나서다르니남가일물이라심중에고이녀여상셔를외

몽소를 일으니 상서깃버왈 신명이 우리의 무지식함을 불쌍히 여겨 사냥츠지식을 주시려 하심이다 다하고 신기히 여겨 더니 과연 그 달부터 덕이 있어 서십삭이 차 미일々は 처음이 집을 두르고 방중에 향취진동하더니 부인 침상에 누어 신음을 하다가 희만하니 일기 옥녀를 나으니라 상서— 비록 남조아님을 섬츠히 여겨 아히 소리를 하에 처음이라 그러므로 남녀를 혐의치 아니하고 향수에 젖겨 누이고 저세히 살펴보니 청수 혼골격이 속히 범골이 아니라 일흔을 봉빈이라 하고 사랑함을 마지 아니하더라 점々 자라 미총명해 일하야 지질이 과인하야 너 공범절이 진선진미하니 진실로 일세에 무쌍하리라 부모의 중이 흠이 장중보옥갓더라 각설령릉사에 회소할 일 위지상이 있스니 셔운이 오명은 중이라 소년등과 하야 벼살이 병부상서에 이르니 명망이 조야에 으뜸이느 슬하에 일기 조너— 업슴으로 명산대찰에 지성으로 기도하더니 일々は 상서— 일몽을 어드니 일위선관이 하날로 좃츠나려와 상서압헤 이르러 지비고왈 소조는 저미궁선관이러니 상대에 득죄하야 인간에 넘치심인 운산신령이 지시하옵기로 의탁고져 왔스오니 엇비녀이소서 하거늘 놀나셔 다르니 침상일몽이라 부인을 석외몽소를 일고서로 깃버하더니 그 달부터 일기 하야 십삭만에 일기 옥동을 탄성하니 상서 부々 깃버하야 일흔을 괴라하다 점々 자라 미옥모선풍이 진세에 뛰여느 고글을 비흔이 총명이 과인하야 문일지십홀으로 서오경과 제즈백가를 무불동지하니 공의 부々 사랑함이 비홀디업더라 초설리상서— 운공으로 더부러한 조덕에 벼살하야 교계 천밀하더니 하로는 리공이 운공을

맛는 한 현을 파하고 좌를 덩홀미한 소년이 운공것히 되섯다가 공순히 비알하거늘 공이 문왈 이호 허니 집슈지조 운공왈 소대의 아히로 소이다 리공 왈 엇지 봄이느 지조하고 손을 올 잡고 곧 오더니 의방년이 지금 멧치며 학문은 무엇엇을 비왔느뇨 공조— 공경디 왈 나흔 칠세 오글은 스셔오경을 디강와 왔느이다 하거늘 리공이 괴특이녀여 칭찬왈 아히타일에 황각주인이 되리로 다하고 운공을 향하야 왈 소대는 도록 조너를 두지 못하다가 우연히 일기녀아를 어드니 나히 지금 칠세라 비박루절이 저모용렬하오니 군조의 건줄을 밧드림즉하오니 외람하오니 더럽다 하자 아니시고 백년간 약를 하거시릿가 운공이 혼연왈 형의 마음이 여츠하실 전디 소대 엇지 감히 스양하오릿가 하고 유과를 디여 즐기며 장성하거늘 다려 성취함을 되약하고 집에 도라와 부인을 보고 운공조와 혼스덩홀슈말을 전하니 부인이 두아히의 성년성월이 갖함을 더욱 깃버하더라 츠시에 강희라하는 스름이 벼살이 각로에 거하야 국정을 천조하며 위권이 일국에 으뜸이느 본리 소인이라 간당을 체결하야 던총을 가리우니 현인 군조— 한 조덕에 엇지를 거로기를 더러히녀이더라 일즈를 두고 비필을 구하더니 리상서의녀아— 식덕이 겸비함을 듯고 미과를 보니 여청혼하거늘 상서— 운공의 아달과 덩홀함으로 허락지 아니하니 미과— 도라와 이디로 고흔디 각로— 불열왈 리가녀아의 나히 유충하거늘 엇지 덩홀하엿스리 오이는 반다시 추락함이로다 미과 디왈 외인의 말을 듯스오니 덩홀하시 분명하더다 각로— 침음량 구에 왈 비록 덩홀하얏스니 빙페는 전하지 아니하얏스리니 형편을 보아도 모하리라 하

더라츠시에국된민안하고가급인죽음으로던지—티평연을비설하고백관을모드
 사즐기실시운공이맛참신병으로참예치못하였더니상이글으사디운종이문삼병으
 로조하지못하는노강희주왕신이천하나아가알고배달하고리다상이즉시윤허
 시니강희운부에이르러례를맞초고이윽히유작하다가드러와담전에유달하되신이
 운종의병세를담지하고니거짓병환야경연을불참함이오니북원황상은살피소서
 한티던안이불열하사침음하시거늘강희정각하되이셔를다셔운종을히치고흔스를
 아스리라하고다시주왕폐하의셔덕이여던하사우순종조함음이스히창성이요순승
 평을즐기옵는지라폐하정연을배푸시고만조를모호사동박하시니문무제신이모다
 축하함옵거늘오작운종이불참하오니이비방하는의스잇스음이라북원황상은그
 죄를다스리사신등과만민의공동지분을풀게하소서상이글으사디운종은본리충직
 지신이라비록일시과실이잇스는엇지중죄로다스리소오원찬하야스스로회개하
 고라하시니강희정각하되니운종을히치고기조를죽여나의심중에품은일을성취하
 려하였더니황상이안사하시니엇지하리오그러나다지회회를보리라하고절도에원
 찬할시슈로만리를가게되니라천금을니여치관을주고당부하되여등이운종을압
 종한다가슈중에서여츠츠하하하니치관이대회하야비사왕엇지감히존명을거역
 할리오하고물너가더라츠절운공조의나히삼삼세라부친이의외에원덕을당하시니
 락디망극하시라불승대분하야알이는반다시강희의소위니무삼원슈로나의부친을

모히하는고하며통곡함을마지아하니운공이더욱초창하야위로하더니치관이나
 르러어명을전하고떠는기를적축하거늘상셔—형리를슈습하야발행할시부인으로
 더부러보중함을셔로당부하니그경상은묵석이라도또한숨을먹음을려라운공조
 —부인새고왈소조는야々를싸라덕소로가오니모친은천만보중하소서하니부인이
 더욱비감하야공조의손을잡고눈물을써려왈슈룩만리에무스득달음을던디신명세
 축슈하노라하고주루방하하더라츠시운공부조—집을떠는강두에이르니스공이벽
 를준비하야디하거늘운공이창두이명을다리고벽에올나종류로나려갈시날이저물
 미강중에서밤을지니더니스공십여명이일시에달녀드러운공을결박하야물에서
 려하거늘공조—대미왕여등이두삼연고로우리부친을히코저하는다스공등이디답
 지아니하고공조를또한결박하야죽이려하거늘공조—스세위급함을보고이결왕여
 등이저물을갑탈하려하거든우리형리를모다슈담홀지라도나의부친을살오면엇지
 이해아니리오도적왕녀의부조—나라에득죄하고또각로의명이계시니엇지살기를
 바라리오죽어도우리를원망치말나하거늘공조—왕각로와원슈업거늘이러듯죽이
 려하니엇지통분치아니리오여등도또한인심이라나만죽이고나의부친은살오면너
 죽어도그 은혜를갑으려하노라도적중에일인이글오디각로의명이비록지엄하니
 아히그부친을위하는정성이지극하니그결박한것을그르고물에너하라하거늘도적
 등이그결박을풀고운공부조를물에드리칠시그중에리희라하는도적이눈물을흘녀

월이는강각로의명이오니엇지거역하리오비록슈중원수를당하실지라도우리들은
원망치말으소서하고운공부조를물에너흐니잔잔창파홀연홍々하더라도적등이
형리를슈탐하야지물을난와가지고비를셋쳐파선흔모양으로슈상에바리고절강부
에드러가고관하니절강티슈—또한강회의뢰물을바든지라운공부조—익슈참스흔
으로게달하니런조—익श्यक샤후회하심을마지안하시더라츠시강회저의소원을
일으고그부인다려슈말을전하니부인이대경월인명이지중하거늘무죄한스름을무
고히살하니엇지신명의별이업스리오이로쫓추우리강문이창성치못하리로소이
다하거늘강회그말을듯고심중에앙々불락하더라츠설운공의부인황씨운공부조를
덕소에보내고슈야슬허하더니절강티슈의쥬문을듯고방성대곡하다가혹절하니시
비등이구호하야다시정신을차리고양던장단왈상공부조—무삼죄로만경창파에참
스하야어복중고흔이되얏고운피야네부친을쫓츠가더니흔박이어는곳에방황하
는뇨륙디갓흐면시신이느차자선영에안장을하련마는전성차성에무삼죄악이그다
지중하야이러흔원수를당하얏는뇨하며다시동곡하다가괴운이막혀흔도하니일가
—민망하야지성으로구호하고만단위로하니부인이겨오정신을진정하야관과을준
비하야공의부조의복을빈렘하야선산에장스하고슈야슬허하더라츠시봉빈이운공
부조의익슈참스흔을듯고내경실식하야급히부친압해나아가고왈듯스오니운상셔
부조덕소로가다가물에죽다하오니그소식이덕실하오니가공이쥬연단왈그러하

거니와네알비아니라하시거늘소서—아미를숙이고왈소녀철세에운공조로더부러
명명함이금석깃속고소녀다려하진말함이명々하시거늘야々엇지이갓치일으시느
닛가하고침소에도와발상동곡하고상복을입고운공의신위를비설하고조석곡읍
을마지안하거늘부모—불가흔을키유하는소제불청하니부모—만류하지못하더
라츠설운공부인황씨슈야익곡하야용모초취하고괴력이최진하야침석에몸을더지
니그참혹흔을참아보지못하더라츠시리상셔—운공부조의참스흔과소저의형상을
참아보지못하야병을일우워날로신음을다가점々침중하니스스로일지못할줄알고
부인파녀아를디하야월니런명이다하야회심치못하리니부인은녀아를다리고조
히보중하소서하며소저의손을잡고왈니를길너원앙의쌍누흔을보려하얏더니시
운이불리하야저의부조—의외에참스를당하얏스니엇지가런치아나리오하날이덥
지아니하샤운공부조의원슈를갑지못하고니또한구천에도라가니엇지비창하지아
니리오런덩하진슈한을엇지하지못할지라너는나죽은후라도파히슬허하지말고너
의모친을모셔기리안파하라고장단일성에엄연히별세하니부인파소서—망곡하
야방성동곡하다가부인이또한괴운이진하야구하지못하고인하야기세하니소서
의궁던지등이엇다하리오자로흔절하니시비설향이지성으로위로왈소서이렷듯하샤
또한옥례를보존치못하시면로와부인의후스를엇지하오릿가하며눈물을금지못
하거늘소서—비록망극중이느설향의말을감동하야초종을지니여후원에례빙하

고조석상식을극진히밧들더라초설강희리공부수의구물음을듯고대회하야리소저
 의외구가현을청하야일오디그디성질리소저—량친의구물을당하고가스를신치하
 리업다하니로부의돈아로빅년가우를밧조려하야그디를청—앗스니그디는슈고를
 앓기지말고주호하야성친하면니장차련폐에천거하야벼살을엇게하리라하거늘가
 현이손샤왈하심이엇지벼살을바라릿가마는상공의분부여초하시니맛당히회를다
 하오리다그러하오느듯스오니리상서성시에운공조로더부러결약함이잇다하더니
 질녀—운공부조의죽음을듯고발상하고신위비설하야삼년을맛츠려한다하오니줄
 연히그마음을도리키지못하올지라그럼으로상공의명을봉행치못할가하느이다강
 희소왈리소저—엇지헛된언약을직혀청춘을허송하리오그디는조흔말로잘기유하
 야마음을돌니게하라가현이응낙하고물너와리부에이르러소저의외로움을무슈히
 위로하고말을퍼글오디네량친이구물하시고운성의집이망하앗스니엇지헛된절기
 를직히여공규에헤으리오당々히아름다운군조를핍하야부귀를누리고선영향화를
 쓴치지아니면무상하디효라니잠간드르니각로강희는원제일국을기우리니부귀데
 일이라제상스람이누—아니추항하리오제아조를두었스되용모지학이당시군조—
 라조명대신중에너아를둔자—사회를삼고저아니리업스느각로종시허치아니하디
 니맛참너의덕행을듯고날로하야곰구호하는뜻을일으니이는문호의영화—라현질
 의뜻은엇더하뇨모름이스양치말라하거늘소저—이말을듯고발언변칙왈네말에일

넛스되충신은불스이군이오렬녀는불경이부라하앗스오니소질이비록운성으로레
 는일우지안엇스느량가부모—신명제명제하엇스오니운슈—불행하야익슈참스하
 앓스오느밍제는변치아니하앗스온지라죄질이맛당히그뒤를쫓칠것이로디선영향
 화를밧들스름이업는고로완명을부지하엿습거니와강희의고기를썤어원슈갑음을
 주야로발원하옵거늘숙부—외로운힘을보조치는뜻하시느엇지원슈로더부러불의
 를밧조라하시느넛고실로평일에바라든바이아니로소이다하고언파에츨파를거스
 러가현을보니괴석이닝담하리라가현이무료하야다시일언을하지못하고강부에도
 라와슈말을전하니강희성각하되이녀조—날을원슈로치부하니만일취치못하면후
 환이되리라하고가현다려일너왈리소저의집절이금석갓스니무삼제교로희심케하
 리오가현이디왈질녀의마음이덜석갓스와도리길일이업스오니쥬장할스름은학성
 썤이오니상공은길일을핍하야성의집으로보이니면여차々하올것이니엇지벼
 서느리잇고강희그말을듯고대회왈그제교맛당하다하고즉사귀구를차려가현을쥬
 니현이밧아가지고집에도라와그안히현씨로더부러각로의말을일으고글오디이취
 단을가지고리부에가서여차々하라하니현씨리부에이르러소저를보고글오디전
 일너의외속이망녕되히현질의게득죄하선고로샤레코져왔노라하니소저—청샤왈
 죄질이전일에숙부말씀이의리에거스리심을분히녀여불공훈말씀으로더하엇스오
 니죄송하음을엇지척량하오릿가하고차과를니여관디하거늘현씨머물너리부에서

차야를지닐시소저—잠들기를기다려강회의치단을소저협소중에넛코잇는날도라
 오나라소저—설향을디하야감회의불의지스를썩짓고왈은공부즈를모히고나를
 겁박고저하야외구로동심모게하니엇지통분치아니리오운공부즈—날로말미암아
 절강슈중에원귀되얏는지라이원슈를잡지못하면구천타일에무삼면목으로운공부
 즈를디하리오후일에니나라를속여썩을어들진디원을일우리라고운공령위에나
 아가실성동공하니설향이붓드러위로알소비싱각하오니강회와가현이소저의줄욕
 음을당하얏스오니반다시감심하지아니하을지라만일불의지변이잇스오면소저—
 엇지탈신하서리잇가소저—그말을듯고되다라왈과연내말이올도다장차엇지하리
 오빙설가튼몸이더러운욕을먼치못할진디차라리절기를온전하야일즉이죽음만
 갓지못하다하고더욱슬허함을마지아니하니설향이곧오디소비미룩불충하오니평
 일에고인을본받고저하옵느니노주의분의군신갓스온지라소저의위급하심을보고
 엇지살기를도모하야안연하오릿고소저의복식을받고와주시면옛날과신의충절을
 효칙할가하느이다소저—청파에설향의등을어로만지며오열왈나는죄악이지중
 하야만상곡경을당하거니와너는무삼죄로스디에빠지려하느노설향이레웁디왈소
 저—엇지여차하신말씀을하시느닛고소비어렸슬씩붓터소저로잠시를떠느지아니
 하옵고질병고락을셔로위로하오니일홈은노주지간이오느정의는곧육갓스온지라
 소저—만일불칙한변을당하야제상을바리시오면소비엇지참아홀로이제상에붓쳐

잇스오며또소저는리씨덕루디향화를맞히세시니그소임이엇지중대치아나하오릿
 가소비갓흔인성은조석에죽을지라도그경하음이참히에일속이오니무삼결의길바
 이잇스오릿가복원소저는갑히살피사후인의시비를취하지말으소저소저—설향의
 말을들으니절々히유리흔지라눈물을거두고청사하야왈비회에정신이요란하야
 의리에죄인이될번하얏더니이제네말을들으니똥을서로섞다름갓도다하고설향으
 로약속을당하고있더니차시강회가현의회보를듯고대회하야아즈의길복을갓초고
 위의를거느려리부로향할시건장훈노즈심여명을싸로게하니이느리부로셔막는자
 —잇스면짓치고소저를겁탈하려함이러라선랑이리부에이르니리부에서무망중차
 변을당함의일이—황々망조하느니라설향이소저의복식을갓초고있다가시비를불
 너연고를무른디시비등이고왈강부에서소저를겁칙하려하야종인을만히거느리고
 이르오니그형제가장위급하야이다하거늘소제그말을듯고분로하야노복을명하야
 강부종인을모다결박하러하더니가현이밤그로쫓차드러오며왈현절이강부의빙폐
 를받고무삼뜻으로다시이곳에이르시며또강적의빙물을받앗다하시니엇지여차
 부—무삼면목으로다시이곳에이르시며또강적의빙물을받앗다하시니엇지여차
 현일이잇스리오만일모친의훈령을도라보지아니하을진디맛당히불칙한욕을보시
 게하올것이오느참으가지못하옵느니오리며무지말으시고빨니도라가샤욕을면하
 소셔또글오디속부—성구지의를싱각하실진디맛당히외로운절녀를보호하실것이

어늘도리여도적으로부동하야 불의 지스를형코저하시니 황천에 도라가시는 날에 무삼면목으로 모친을 디하사 릿가 현이 왓 남흔녀 가는 인륜상스라 닌 비록 불민하느네 닌 구되여 엇지 불의 지스를형하며 또 녀의 운가를 직히려 흠이 실로가 소흔지라 엇지 탄 처아닐바—리오강가의 빙패를네 밧지 아니하얏다하느네 만일 밧지 아니하얏스면 강공조—엇지 이르릿스리오네 공연히 이 목을 가리우려하느니 말고 장림을 내려 불지어 다 이는 다름아니라 네 전일에 나를 면박호고로 금일을 당하야 스스르 무류하야 나의 척망을 막고 저 흠이느니 너를 엇비녀여 옥인 군주를 킁하야 밧기려하느니 비록 응석흔녀 조의 소견으로 잠시 허물이 잇다하느니 엇지 그를 관계하리오 모롬이 현질은 붓그리 지말지어다 소저—이 말을 듯고 괴가 막혀 발연변석하고 장림을 내려 보니 과연 강가의 빙물이 잇는 지라 분로음을 견디지 못하야 빙패를 찢어 바리고 가 현을 향하야 왓 일전에 속모—와서 일야를 동침하느니 흥흥뜻을 품어나를히치도다하고 벽상에 걸넌 보검을 찢혀가 현을 치니 현이 대경하야 피하다가 손이 마저나려지는 지라 혼돈하야 것구러지거늘 강가 노복이 형제 불호음을 보고 일시에 달려드러가 현을 붓드러나아가고 소저를 겁박하려하거늘 소저—급히 협실로 피신하느니 설향이 나오며 손에 보검을 들고 여성 왓스 세여 츠하느니 마지 못하야 좃드려나와 여등이 만일 무례할진디 나차라 리이 칼로 명을 밧칠지라도 옥을 당치 아니리라 하느니—능히 진가를 알니 오공조—추언을 듯고 대화하야 노복을 썩지저 무례히 구지 말나하고 친교에 소저를 뵈시라 하야 여려시너—옹위하야 강부로 도라오니 도로에 관광하느자—서로 일너 왓 리 소저—절기고 상하야 외로운

절을 직히더니 스세 할 일 업서 강공조의 비 필이 되니 엇지 차석지 아니리 오하느니라 초설 리 소저—설향으로 디신하고 협실에 은신하얏다가 신랑이 도라간 후 소저—노복에게 가스를 밧기고 남복을 환착하야 상셔의 외령위와 운공피연에 슬피 통곡하고 문밧그로 나가 가니 읍프다 연약호소저—심규에 처하야 중문 밧글나지 아니하다가 박명홍안이 슈명을 도망치 못하야 혈々 단신이 널고 널은 던디에 지향 업시 집을 떠느니 그 경상이 엇지 참혹하느니 하느니 오차 설강공조—신부를 호위하야 본부에 도라오니 잔치를 크게 베풀하느니 리 천척이 만히 모쳤는 지라 신부를 당으로 인도하야 교비석에 드리니 신부—홀연히 소리를 높혀 왓 나느니 리 소저—아니 오소저의 시비 설향이라 소저—불의지 환을 당하심으로 소저를 디신하야 괴신의 충절을 효칙하려 왓느니 슈히 죽이고 옥을 더하느니 말나하거늘 제인이 놀나며 열변거짓 말인가의 심하야 일오디 소제 엇지 이러할 말을 하느니 노하느니 설향이 고성 왓느니 엇지 리 소저 리오 우리 소저는 운공조를 위하야 슈절을 간하느니 엇지 이에 오시리 오하거늘 강회진가를 아지 못하야 가 현을 청하야 진가를 분디로하야 창두를 썩지저 설향을 잡아 나리라 하고 슈죄하야 왓네 일기 천비로 감히 리너를 디신하야 나를 희롱하느니 고남의 우음을 밧게하느니 맛당히 너를 죽여 설분하느니라 하고 창두를 호령하느니 위엄이 추상갓흔지라 설향이 얼골 빗출조곰도 변치 아니하느니 고녕소 왓느

고로 국가에 충신이 잇고 집에 충노충비잇는니 주인을위하야 죽음이영행이오구초로히살은미원이아니라야일국되신이되야인군을도아왕화를널니배푸지아니하도리혀불의지스를형하야를리를손상하고명교에죄인이되니엇지붓그럽지아니하리오이제나가비록무도한사람을맛는어굴히죽은는똥다운일홈이천추에류전하리니엇지아름답지아니리오하거늘강희분노하야로복을호령하야설향을죽이려하니부인쥬씨만류하야이제주인을위하야죽기를두리지아니하니이는충비라상공은관서하야돌녀보닉소서강희본리부인을경되하는지라마지못하야설향을노아보니고동분하고참괴홈을이지못하야간장호창두를다리고리부에이르러노복등을모다잡아상부에도라와중형을베풀고소서간곳을국문하니노비등이흔불부신하야목숨을이결하며고하야왈우리딕소재—욕을면코저하야단검을품고후문으로나가시오니간바를엇지아오릿가강희일일업서리상서의령위를분죄하고도라오더라초설리소서—호구를버셔는노주랑인이남복을기착하고천신만고로심여일만에한곳에다다르니려렴이즐비하거늘점々나아가니큰집이잇스되한어스덕이라하거늘나아가일야투숙홈을청하니한사람이나와일오디이딕은과거하신딕이라남당이업스니점적지못하니다하거늘소재닉심에다행하야공순히티왈날이임의저물고갈곳이업스니침하라도일야를빌니시면은혜난망일가하니다기인이소서외옥모션풍을보고박티치못하야드러가더니이옥하야다시나와부인의명으로일야혈각홈을허락

하고외당으로인도하거늘소재깃버당에올나스면을살피보니장원이되락하고잡초—무성하야쳐량호경석을일우웠더라이옥고시비나와주파를드리고부인의말삼으로전하야왈공조는늬딕공조시며어디를가시는닛고로신은본리박명인성이라죽은조석을싱각홈이비회총가하야일비박주를드리오니정으로밖으소서하거늘소재—공경답왈소싱은오관사람이라성은리오명은봉빈이러니명도과박하야부친이기세외에관티하심을밧조오니불승황감하여이다하며비감호빋치량미에가득하니그소리익원쳐창하야너조의티도잇는지라시비고이하게녀여너당에드러가일々히고하니부인이의아하야닉심에헤오디이는반드시늬—집녀조—가화를맛는피신홈이로다하고다시시비로전갈하되로신이일즉소연을여의고혈々단신이구초로히잔명을보존하옵는지라공조의말씀을듯스오니남녀는비록다르오스넷말에일넷스되동병상련이라하오니갓흔정경이의석지아니하오리오천히보아회포를위로코저하니비록남녀유별이라하오스로신의나히륙십이라현의업스리니잠시드러오시면일가하는이다하거늘소재—저삼점양하다가시비를싸드러가니부인이좌를일어맞거늘소재—공경저비하니부인이답례하고좌를정호후부인이소저로더부러여러말씀을슈작하다가위연탄왈로신이나히만코후스들의탁할곳이업는고로쥬야슬허하더니공조—또한부모를일죽여히고무의하다하오니서로의지하십이엇더하시뇨

소저 — 렬용디왈소성이명도괴박하와일즉이런디를여희고의뢰할바이업스와스히
 에류리표박하음더니부인이런디갓흐신덕을드리우샤슬하에머물녀하시오니불승
 황감하온지라엇지감히스향하오릿고부인이눈물을흘녀왈로신은한어스의안히라
 가군이일즉등과하야벼살이리부시랑에있더니 — 천조 — 총이하샤시어스를제슈하시
 니가군이본리첨럼당직하심으로소인의모히음을입어벼살을바리시고고향에도
 라와농업을힘쓰니부귀극흔지라슬하에다만녀를두엇더니삼년전에아즈를일코
 어스 — 이어기세하시니로신이그뒤를쫓출것이로되향화를전할곳이업슬뿐더러슬
 하에한낫녀 — 잇는지라가련하야구구잔명이일기녀 — 를의지하야지니니녀 — 의
 방년이이칠이라서로의탁하야지니더니공조의정회를드르니또한일반이라공조의
 나은죽은 — 즈로더부러동년이라 — 즈를본듯하오니이는하날이로신의고혈음을가
 공히녀이샤공조를지시하심이니금일로부터숙질지의를미즈여년을맛고저하느니
 마음에엇더하시뇨소저 — 듯기를다하곤죽이고왈준교를듯스오니황공감사하여
 이다소싱갓흔천성을거두시려하시오니은혜망극하오니귀소저 — 계시다하오니불
 안할듯하여이다부인이공조 — 녀 — 를구이할실진디형미지의를미즈미올도다하
 드디여소저를불으시니소저 — 듯고크게놀나왈모친이엇지비례지스를형견저하
 는뇨하고시비로고하되우연이한과의침노하바 — 되야괴동치못하느이다하니부인
 이소왈녀 — 초면남즈를디함이슈괴하야칭병함이 — 형미지의를미즈나와의외로울

을위로하면무삼불가함이잇스리오빨나오라하시니소저 — 감히역명치못하야시
 비를싸라종당에이르러부인갓히시리하거늘부인이명하야형미지의를미즈라하
 니량인이마지못하야슈명하고례를맞추미한소저슈괴함을씩여부인을모셔안거늘
 부인이흔연왈이제너희량인이형미지의를미즈스니서로협의치말고기리나의슬하
 를직혀외로운회포를위로하라하시니량인이유슈명하더라이날로부터소저 — 부
 인을지성으로섬기고한소저를천미와갓치디접하며비복등을무릎하니가증이화락
 하더라이러구려운공조의종상을당하느니소저 — 비회를익이지못하야후원심처에
 드러가일장을암읍하느니그심스 — 오작하리오비감함빛을밧그로보이지는아니하느
 심회를당치못함의안식이날로초취하느니부인이그울쳐흔심회를짐작하고못니위로
 하며니심으로혜오디아모리보아도분명하느니어늘종시진정을토설치아니하느니고
 이흐일도만도다그러하느니나종을보리라하고그러하스식을보이지아니하느니라리소
 저 — 한부인을의탁후로병서를잡심하며궁마를런습하느니그뜻을엇지척량하리오
 노복등은호협흔과남즈를칭송하느니부인은니심으로의혹함을더욱마지아니하느니라
 초설운공부즈 — 불의에도적을맞느니슈중에드리치미련디아득하야정신을일고풍낭
 에쓰여한업시불려가더니풍낭이긋치며부르는소리들니거늘그제야정신을차려눈
 을드러보니청의동조 — 것히안장거늘니심에혜오되니반다시죽어슈궁에드러오도
 다하고두루살펴보니궁궐이아니오일엽소선이라마음에의 — 하야위연장탄왈동조

어디로 좇추어 이르러 죽는 사람을 구원하는 노동자 — 미소왕공은 정신을 진정
 할 소셔할 거늘 그 제 죽지 아니 할 줄 알고 괴좌하니 동자 — 왕손공이 엿지나를 아 르시리
 잇고 존공이의 외지변을 당할 심이 또 한 번 슈 — 라 엿지 원망하리 잇고 심칠년을 지니시
 오면 다시 영화를 보실 것이 오니 한치 말으 소셔하고 비를 저어가니 빨으기 살갓흔지라
 순식간에 한곳에 이르러 운공부조를 비에나리게 하고 보중음을 당부하거늘 운공이 그
 은혜를 감격하야 동자의 거주를 무르니 우스며 대답지 아니하고 비머리를 도리켜 저어
 가니 그 가는 바를 아지 못할지라 운공부조 — 공중을 향하야 무슈히 샐레고 지향업시
 가더니 날이 서산에 저무는 지라도 도로에 방황하야 인가를 찾더니 멀리 바라보니 산하에
 촌락이 보이거늘 그곳을 차가니 일좌대장이 잇는 지라 문을 두드리니 한로파 — 나와
 문왈 그대는 엿더흔 사람이 관티여 초흔 산벽궁향에 누를 차와는 노공조 — 답왈 나는
 령릉사람이라 전후랑패하슈 말은 종추베풀녀니와 바라건디로파는 일야혈 각함을 빌
 니라 하니로파 — 이 말을 듯고 즉시 외당으로 인도하거늘 운공부조 — 후은을 청사하고
 밤을 지니더니 운공이 홀연득 병하야 능히 형보를 하지 못하는 지라 슈일류련하야 치료
 하더니 병세 날로 침중하는 지라 공조 — 민망하야 지성으로 약을 구하야 쓰되 조금도 차
 도가 업고 주인이 빈한하야 조석을 일우지 못하거늘 공조 — 홀일업서 양식을 빌어다가
 병천을 구호하고 주야로 신명세축슈하니 그 경상은 참아보지 못할라 초설리 소져 —
 하어 스집에의 탁하야 무정흔 세월을 헛도이 보니니 일신은 비록 편안하느신세를 칭가

홀이 비회를 엿지여 제하리 오춘풍추월에 떠러지는 싹과 슬피우는 기력이 소리에 싹흔
 을사도 더니 일소는 부인이 소저를 청하야 왈도 신이 그디를 맛느 숙질의를 미자와 외로움
 을의탁하니 만분다행이니 이제 녀의 비필을 덩치 못하니 그디로 더부러 형미지의를
 리즘은 그디의 마음을 편안케하려 함이라 엿지의 본심이 리오그디량친이 구물하고
 또 고혈하야 의지할 곳이 업다하니 현문에 숙녀를 더덕년을 언약함이 또 한어려울지
 라로신의녀 — 비록 비박루질이니 죽히 군주의 건줄을 바드름죽하니 바라건디그디
 는 혐의치아니하고 괴최의 소임을 맞기면로신이 비록 금일에 구천으로 도라갈지라도
 눈을 감을가하노라 소져 — 이 말듯고 심리에 대경하야 피석손사왈소저를 무홀하심이
 천지에서 지니시니 그은혜하날갓스온지라 슈화디라도 존명을 엿지거역하오릿가
 마는 아즉 품은 싹을 일우지 못하엿스오니 소회를 맞친후 명교를 봉송하올가하느이다
 부인이 즉시 소저를 불러 안치고 왈녀의 부친이 아니게 시고 강근지족이 업산지라 이제
 나의 연과가 칠십이불원하니 황천에 도라감이 조석에잇슬지라 다만너한아를 길으다
 가 박년가우를 덩치 못하고 죽으면 비록 도라가는 호령인들 엿지한 흠지아니하며 또 무
 삼면목으로녀의 부친을 디하리오그려 함으로 금일에녀의 박년비필을 덩하느니모름
 이녀아는 승순군조하야 부도를 극진히 지히여 군주의 건줄을 육되이하지말지어다하
 고 양인을 저촉하야 교박케하니 양인이 명을 거역지 못하야례를 맞치니 진실로 일쌍명
 주가 슈중에 서시로나을갓더라 부인이 깃거함을 마지아니하야 리공조의 찬바금전을

글너 소저를 주고 소저의 가진 옥지 환은 공조를 주어 기히 간슈하라 하시니 양인이 각각
바다 물너가니라 리공조—침소에 도라와 생각하시니 신슈불행하야 녀화 위남하야 소
원을 도모하려 함으로 세 부득하야 인륜을 회롱하니 엇지 명교에 죄인이 아니리오 한
초 엇지 하야 양편하리 오히려 근심함을 마지아니하시더니 차사현조—어진 지조를 띠
하시려 하야 과거를 보이실 서스히에 도착을 나리시니 공조—이 소식을 듣고 대희하야
부인과 소저를 리별하고 일필 청려를 몰아 경사로 향하시니 석는 모춘을 당흔지라 백화—
만발하고 창경이 벼를 부르니 풍경이 가려하야 사람의 흥미를 도도듯하더라 여러 날
지를 들고 장중에 드러가니 스방 선비 구름 모히듯하야 지조를 자랑하야 모다 계화 데 일
지를 씌고려하더라 공조—글제를 살피보니 평일에 익숙히 짓든바—라 생각할 것 업시
일필 휘지하야 선장에 드리고 방목을 기다리더니 황데 공조의 글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
샤 왕충의 지심이 글귀에 나타나니 그 사람을 보지아니하야 도가히 아름다운 선비고 줄
알나로다 하시고 비봉을 리탁하시니 전임리부상 서중취의 아달리 봉빈이라 하얏거늘
상이 대희하야 호명하시니 봉빈이 옥계에 드러가 복디하온디 상이 보시니 풍치리적 선
갓거늘 통안이 대열하샤 글—스디경의 아비 국가에 충성을 다하더니 불행단명하야 일
죽이 짐을 바리미 짐이 미양그 위인을 생각하야 차석함을 마지아니더니 이제 경이 이러

듯 총명준슈하시니 이는 하날이 대명사직을 위하심이로다 하시고 하림 학스를 제슈하시
며 청기와 어악을 주시니 이 석에 강희 것해 입시하엿다가 봉빈이 리중취의 아달이라 함
을 듣고 황상께 주왕리 중취는 본리무조하오니 엇지 아달이 잇스오릿고 봉빈이 일함을
빌어나라를 괴망하고 벼살을 도모코져 함이 오니 맛당히 봉빈을 문죄하샤 국법을 바로
게 하소서 상이 밋쳐 답지 못하샤 봉빈이 강희를 보미로고 충현하야 대즐 왕네 국가의 주
을 만분지일이 라도 보답함이 신조의 도리어 늘네 충량을 모히하야 서충을 가리여 백성
을 보채니 만민이 네 고기를 먹으려아니하느니 업는지라 너 갓흔디역지 신이 엇지 묘당
에서 리오성 충은 잠시가 리우느하날 판티조고 황데 신령이 엇지 두렵지아니하리 오
히려 석닫지 못하코 두현 절능으로 평성스 업을 삼으니 그 죄를 창초어느 곳에 다 쓰으려
하느뇨 하며 석짓기를 마지아니하시니 강희 능히 답지 못하느니라 상이 친로하샤 강희
를 석지 저글 오사 디리 봉빈은 하날이 주신 바여 늘네 무단히 무근지 언을 닮여 충량을
치코저하시니 이는 불충불인이 라하시고 조칙을 나리우샤 강희를 원찬하라 하시더라
설봉빈이 삼일유과 혼슈유를 어더고 향에 나려와 선산에 소분하코고 탁에 이르니 문
당이 되락하코 속초—설압해가 득하야 황량한 경석을 참아보지 못할지라 비창함을 아
이지 못하야 가묘에 올라 동곡하코 당중에 이르니 설향이 봉빈의 옷걸을 잡고 열왕소
저—그 간에 어느 곳에 은신하시며 풍상을 알마느 격그시닛가 소저 떠느 신후로 소식 이

막연하오니 소비성각에는 차성은 다시 퇴을 괴악이 업스온지라 리성이 다시 노주되
야미진하온인연을 갑홀가하얏습더니 천만척박게 못느 퇴오니 실로 몽중인듯 하여이
다하며 강부에 드러가서 강회수짓던 말삼을 고하거늘 소저—설향의 총절을 무슈히 칭
찬하고 그간 지니던 일을 설화하니 비회교집하야 눈물을 금치 못하더라 설향이 다시 못
조와글오디소제잠서이목을 속여 과거를 보시오니 아죽은 비록 영귀하시오니 리두를
장차엿지코저하시느니고소저—위연탄왈니 비록 녀조—는 운공부조의 원슈를 잡고
야 말니 이너는 아모 녀쳐 말나하고 수일을 머무다가 설향으로 집을 직히우고 한어스
집으로 향홀재수히도 라움을 일으니 설향이 눈물을 흘려 보중하심을 일컷고 연々함을
마지아나하더라 초설한부인이 리성을 경성에 보내고 소식을 물나민하더니 리성이
장원급제하야 나려오는 소식을 듣고 대희하야 잔채를 비설하코한림의 도라움을 기다
리더니 수일을 지니미한림이 이르거늘 부인이 중문에 나가 마즈니 한림이 비복하야
그간 떠난 회포를 위로하코 소저로 반기니 그기거함을 이로 칭양치 못하리라 여려번
을 청하야 즐기니 모다 부인의 지인 지감이 고상함을 칭송하더라 그러구러 말귀한이
차미한림이 부인과 소저를 하직하코 황성으로 올라와 궐하에 복디하온디 상이 디회하
사도로에 구치함을 위로하시코 날로 인견하사 려디 데왕의 득실과 국가 흥망의 론하
시니 한림이 현신을 갖가히하코 소인을 멀리함으로 주달하온디 상이 그말씀을 아름다
히 녀이 사김히 드리시고 총익하심 이날 노를 성하사 병부상서에 시어스를 겸하야 제슈

하시거늘 한림이 년소하코 학식이 부족함으로 고스하온디 상이 불운하시고 글오사되
경이 비록 년소하느국스를 그릇 칠스름이 아니니 짐의 밋는 바를 저바리지 말고 총성을
다하야 짐을 도으라하시거늘 상서—련은 을 감겨하야 속사하코 물너오더라 초시운남
이강성하야 대국디경을 침범하거늘 상이 근심하사 만조를 모으시고 의론왈니—능히
국가를 위하야 짐의 근심을 덜고하신디 병부상서 리봉벤이 출반주왈신이 듯스오니 인
군이 육되미신하—죽고인군이 근심하심미신하—육되다하오니 신이 패하의 지우지
은을 밋스온의 우악하신성은 만분지일도 보답하음이 업스오니 신이 비록 무지하오
느일려지스를 밋나시오면 운남왕의 머리를 버혀 황상의 근심을 덜니이다하거늘 상이
대열하사 즉시 리봉벤으로 정남디원슈를 봉하시고 정병삼십만과 밍장천여원을 주시
며 비모황월인검을 주시고 글오사디제장이 군령을 거역하는자—잇거던 선참후계하
라하시니 원수비사하코 물너와 군스를 점고하야 즉일출스홀시호령이 엄숙하코 군용
이정하하니 제장군졸이 두리지아니리업더라 상이 친히도 문심리박게 전송하실시잔
을 들어 원수에게 권하시고 글오사디원수는 일즉이도덕을 평당하코 기가를 불너도라
와 짐의견권하는마음을 위로하라하시니 원수부복명하코 물너와 복을 올녀히군하
니고치창검이 일월을 회통하더라 여려날만에 운남디경에 이르러 제세를 탐지하니 변
장이 글오디운남대자복왕은 만부부당지용이 잇느이다하거늘 원수—침음하코겨서
를 전하니 복왕이겨서를 보고 대로하야 찌저바리고 군중에 전령하야 진세를 배풀고선

봉한피로하야곰출마대호왕명진중에목숨을앗기지안는자——잇거던쌀나와니칼
을밧으라하거늘원수——선봉장의을명하야마자쓰호라하니장이응성출마하야한
피를마자싸와이십여합에불분승부러니장이거짓피하야말머리를도리켜다라
니한피급히싸로거늘장이대갈일성에한피를잡나리치고군스를호령하야
한패를사로잡아본진으로도라오니덕진중에서일원대장이정창출마하야크게웨여
왈나는운남대장복왕이라나의선봉죽인장수는닷지말고니칼을바드라하거늘원수
방포일성에청강검을밧겨들고천리대완마를니모라크게싸지저왈무지흔오랑키던
시를모르고대국을침범하니엇지살기를바라리오네잔명을앗기거던쌀나말게나려
하복하야나의칼날을더레이지말나하니복왕이대로하야창을두루며마자쓰와오십
여합에이르더니문득원수의청강검이밧는며복왕의머리마하에나려지는지라운남
대장오달이복왕의죽음을보고불승분노하야칼을두루고니다라크게웨여왕복죽
인장수는닷지말고니칼을바드라하거늘원수도로왕무지흔오랑키엇지대국의원수
를당하리오하고마자쓰와이십여합에이르되승피를난우지못하더니오달이류성되
를들어치거늘원수급히피하고다시쓰호더니수합이못하야오달이말머리를도리켜
다라나거늘원수급히싸로더니오달이가만히혈궁에왜전을먹여쓰거늘원수씩다라
오는살을밧아쓰거바리고대미왈오랑키엇지감히나를속이려하노하고칼을들어
오달의말을잡나거구로치니오달이번신락마하는지라원수——다시칼을들어질으려

하더니운남진중에서여러장수——일시에니다라오달을구원하코원수를마자쓰호니
금고함성이런디진동하더라원수——여러덕장을마자쓰호미정신이점々씩하야검
광이히스빗출희롱하니저문몸에비뒹치광풍을쫓쳐날날갓흔지라덕장등이능히
대덕지못하야창검을쓰을며다라나거늘원수——승하야덕진을짓치니청강검이르
는곳에덕진장졸의머리쭈뚱락열갓치나려지니덕진장졸이물결쳐여지듯하더라날
이저물되징을물너군스를거두거늘원수——크게승전하코본진에도라와한피를잡아
드러싸지저왈무지흔오랑키엇지감히대국을침범하노하네죄상을싱각하면맛당히
버힐것이로되쭈장하야——잇슴으로잔명을살너도라보니——너의쭈장을권하야
속히투항하코버힘을지축지말나하니한피황공참피하야머리를쓰고본진으로도라
가더라츠설오달이피병을수습하야점고하니겨오수만이라제장으로더부러의론왈
덕장의용맹을당홀자——업스니제장은무삼묘칙이잇노예제장이일시에글오되우리
군스——한바찌김을당홀이다시쓰호지못홀지라일즉이본국으로도라가다시군스를
일히켜저웅을결단함만갓지못하야이다하거늘오달이글오되우리는덕장을이곳에
마자쓰호고대왕은바로명국도성을엄살하야런하를평당코저하얏더니시운이불형
하야비록저의게피함을보앗스니엇지무단히도라가큰계교를그릇치리오일승일피
는병가상스라하코놓흔디올노두루살피더니진중에도라와제장을불너분부왈이골
로쫓츠이심리를드러가면소탐이라하는골이잇고좌우에수풀이무성하니그덕등은

금야에 오천군을 거느리고 그곳에 가서 굴함을 파 되 광이 오 십척이 오 십기 이 십장 그 우
 에 션을 쓰코 흙을 덩허 평디를 밟고 수 림중에 미복하였다가 명병의 이르물보아니 다
 라 짓치라 만일 군령을 거력하는 자 잇스면 군법으로 시행하리라 하니 제장이령을 듯고
 흙과는 그 계를 준비하야 가지고 소삼곡으로 가더라 초일에 오달이 진문을 크게 열고 말
 을 닦모라 크게 웨여 왈 오날은 승부를 결단하리라 하고 창을 두루며 쓰흙을 두거늘 원
 수분로 하야 칼을 두루며 마저 쓰와 십여 합에 불분승부러니 오달이 거 죽피하야 창을 찔
 고 다라 나거늘 원수 급히싸도며 대갈왈 덕장은 닷지 말고 닦칼을 밧으라 하더니 이 십
 여리는 하야 하날이 문히지고 싸이싸지는 소리 일어느며 원수의 말이 굴함에 싸지니 좌
 우북병이 일시에 나다라 돌과 흙으로 굴함을 메우니 오달이 말머리를 도리켜 명진을 향
 하야 엄살하니 명진 장졸의 죽엄티산갓더라 오달이 승하야 명진을 쓰러바리고 본진
 으로 도라와 제장 다려일너 왈 명장이 굴함에 싸졌스니 제아모리련신갓흔들엇
 지능히 버셔느리오리 봉빈이 죽으면 명국에 나 의덕수 업는 지라 명대를 살로 잡아던하
 를 평당하야 그 덕 등으로 더부러 평을 누리리니 엇지 절첩지 아니리오 제장이 일시치
 하하야 왈 장군의 신산은 귀신도 밋치지 못하리라 하더라 초셜 원수 굴함에 싸져 버
 셔날길 이 업는 지라 하날을 우르러 기리 탄식 왈 닦힘을 다하야 도덕을 멸하고 국은을 만
 분지일이 라도 갑훈후운공의 원수를 잡고저하였더니 오날이 이곳에서 죽게되니 이는
 하날이나를 망케하심이로다 하고 언파에 칼을 썩여 즈문코저하더니 문득싸히우는 소

리나며 안기 자옥하더니 그 가운데서 불너 왈 원수는 죽지 말고 이곳으로 나려오라 하
 거늘 원수 의아하야 소리나는 곳을 향하고 두어 발을 옮기다가 홀연 실족하야 공중으
 로 나려가거늘 원수 정신을 일코이옥히나려가더니 홀연 두발이 싸에 닷는 지라 그 제
 야 정신을 차려 눈을 들어보니 일월이 명낭하거늘 어느 곳인지 아지 못하고 차차나오더
 니 한낫 청의 동조 표연히 원수 압헤 이르러 절하야 왈 상공이 대명국대 원수 아니시닛
 가하거늘 원수 신과히 녀여 답례왈 과연 그러하거니와 선동이 엇지아노 동조 표연히
 우리대왕이 원수를 청하시디다 하거늘 원수 더욱의아하야 곧오디 대왕은 누구시
 관디진제의 천성을 청하시나뇨 밝히가라 침을 바라노라 청의 소왈 나를 싸라가시면 조
 연알으시리이다 하거늘 원수 아모란 줄 모르고 청의를 찢라호 곳곳에 이르니 주궁되 켜
 이 반공에 소산는 디 천문만호가 좌우에라 절하야 엄숙한괴상이 왕자의 거처갓더라 큰
 문밧개 이르러 청의 곧오디 상공은 잠시기다리소서 문져드러가듯하리이다 하고 궁중
 으로 드러가더니 옥하야 청의 다시나와 길을 인도하거늘 원수 동조를 찢라여려문
 을 지니여한덕각에 이르니 일위왕자 전상에안져다가 원수를 보고 밧비상에나려마
 저좌대후왕자 곧오디 자일에 옥경에 도회하더니 옥데일사디 명일오시에 대명국
 디 원수리 봉빈이 운남장수 오달의 계교에 속아 굴탐에 싸질 것이니 구하라하시기로이
 곳으로 청하얏나니 만일 상제의 명이 아니시면 원수대환을 엇지 면하리오 하고 차를 닦
 여관디하거늘 원수 청사왈 비록 옥제의 명이 계시나 죽을스라를 구하하시니 그은혜

빅골난망이로소이다 원전디 존호를들어 지이다 하니 왕자 — 답왈 나는 동히 룡왕이 어
니와 원슈 — 일정 전소를 아지 못하도다 왕소를 일너 무익한지라 번거히 일으지 아니하
거니와 그디의 간고익이다 지니 갖스니 다 시 두려울바 — 업는 지라 종초로 무궁한 복록
을 누리리라 하거늘 원슈 — 너심에 헤오티이 왕자 — 동히 룡왕이라 하니 운공부조의 혼
령을 알니로다 하고 다시 청사알인간 벌골이 엿지 왕소를 알니잇고 그러하오느 운공부
조 — 절강에서 적화를 맞느 슈중에 참소를 당하얏스오니 생각건디 외로운 운공부조의 대왕
의 치하에의 지상얏스을 지라 한번 맛느보게 하심이 엿다 하시니 룡왕왈 그디의 말이
그러하듯하느스히에 룡왕이가 맛흔바이잇는고로 파인은 동히 룡왕을 맛히고 절강은 남
히소속이라 파인이 엿지 단호리 오그러하느후일에 맛날척가잇스리니 그는 아직 급
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도적이 원슈의 업습을 타서 황성을 칠번코저하느니 쌀이나 아
가 국가를 붓들라 하거늘 원슈왈 나아갈길이 업스오니 엿지하오릿가 룡왕왈 원슈 — 엿
지나아가기를 근심하느뇨 하고 즉시 동조를 명하야 일필 룡충을 잇그러오니 전신이 옷
칠하듯하거늘 팔척이라 두눈이 셋별갓흐니 진실로 용종이라 용왕이 왈이 말이 일
々에 능히 천리를 가느니 운남파하기를 엿지 근심하리 오하거늘 원슈 청사왈 대왕의 온
덕을 헌임스와 죽을 목숨이 스디를 버셔느고 또 천리 준충을 주시오니 하히 갖흔은 덕을
장초무엇으로 만분지일이느 갑스오릿가 용왕이 소왈 스소호일을 엿지은 헤라하리 오
너모 청사하시니 도리혀 불안하며이다 하고 인하야 동조를 명하야 길을 인도하라 하

고 쌀나도라 감을 저축하거늘 원슈 — 룡왕을 하직하거동조를 싸라 쉼분 밧게나 오니 만
경창파가 류리 세계를 일우엇더라 동조 — 원슈 다려일너 왈이 말을 타시고 한번 채질하
시면 순식간에 운남디 경을 득달하오리니 원슈는 수히도라가셔 공하시고 후일 맛나심
을 괴약하소려하거언필에 인홀불견하거늘 원슈 — 결연함을 먹음고 말세올나 산호채
를 들어 한번 치니 말이 수중으로 좃츠한번 스미물결이 좌우로 허여지니 창히가 것구
로 흐르는듯하더라 수중을 떠느공중으로 올라 운무를 헛치니 쌀으기 비용갓더라 경각
지경에 명진에 이르니 운남군스 — 명진을 덜동갓치 돌너쓰고 스면으로 업살하야 명진
이거의 항복게 되얏거늘 원슈대로 하야 대갈일성에 칼을 두르고 적진을 짓치니 이적에
오달이 원수를 굴할에 싸치고 명진을 식살하더니 쏫밧게 원슈살아움을 보고 대경하야
급히 징을 울녀 군스를 거두고 본진에 도라와 제장다려일너 왈리 비봉이 분명히 굴함에
싸진지라 제비록 날키가잇셔도 능히 소스나오지 못하리이늘이 제죽지아니하거고
살아도라 오니 이는 반다시 하날이 도으심이로다 이를 장차 엿지하리 오일이 임의이에
이르니 그장지 무라 엿지긋치리 오우리 비록 회군할지라도 제가 반다시 싸로리니 무단
히 덕병을 인도하야 우리디 경을 요란케하거던 하의 우음만 취할것이 오하물며 우리쥬
상이 임의 명국디 경에 겁히드러가시니 그형제 줄디 회군키어려울지라 필연 명진에 곤
난을 바드시리니 기제량난이라 엿지하면 도흐리 오그디 등은 도흔게 책을 일너나의 근
심을 덜나하니 운남제장이 원슈의 살아도라움을 보고 모다 간담이 썩여져서야 모말도

못하고 다만 서로 치여 다 볼 뿐이어늘 오달이 기연탄왈 디장부—세상에나 미맛당히림
신양명왕야일흔을죽빅에드리워천추에유전할지라엇지죽기를두려공명을취치아
니하리오공등은힘을다하야나의한팔힘을도와명국을쳐서행복받고티평을한가지
로누리면엇지아름답지아니하리오스성이유명하니리봉변이제아모리용밍하는중
인의동심합력을엇지능히덕하리오공등은두리지말고심력을다하야공을일우게
하라하니세장이오달의기유함을감격하야일시에골오디장군이이처럼효유하시니
우리등이엇지죽기를두려대스를그릇치오릿가맛당히괴력을다하야견마의수고로
우물본바드리다하더라이적에원수운남군을몰니치고명진자졸을구원하니제장군
졸이원수의다시살아도라움을보고치하분々하야서로깃버함을마지아니하더라
설선시에운남왕이오달의게스십만병을주어명국동남방으로쳐드러가게하고왕은
정병삼만을가느라사이길로쫓츠마운령을너머청하수를건너서바로황성을범하
더니이적에던조—원수를보이니시고날로첩셔를기다리시더니천만의외에운남왕이
날닌군스를가느라황성을침범함의만성인민이불의지변을당하고황々망조하야호
곡하는소리던디진동하거늘던조—대경하야만조빅관을모호시고적병몰니칠계교
를의론하시니제신복디주왕성중에날닌군스와지혜잇는장수는모다리봉변을싸라
출전하옵고남은것은로약썩이오이엇지능히운남의식랑갓흔도적을덕적하오릿가
신등의어린소견에는잠시피란하심만갓지못할가하오니복원황상은오날밤에미복

으로복문을열어당양으로피하시고스자를보너리봉변을회군하라하야다시도성
을회복하심이상척일가하느이다하거늘상이골의사디짐이만일피란하면도적이성
에드러와종묘사직을불질너육보이리니짐이무삼면목으로다시신민을덕하리오하
시고탄식함을마지아니하시더니근시급하고하야왈도적이발서남문을썩치고몰미
듯드러오느이다하거늘던조망극하야용표를버서바리시고조진중에섯기여복문을
열고피란하시니황후와티조—살오잡힌지라운남왕이궁중에웅거하고선봉으로하
야곰크게웨여왈만일항복지아니하면황후와티조를다죽이리라하거늘던조—그말을
들으시고앙련장탄왈짐이불명하야일죽이인지를덕하야스히를직히치못함으로일
조에사직을망케되니무삼면목으로디하에도라가고황대신령세배오리오하시고용
누—싸에떠러지시니제신이망극하야항복하야종묘사직을보존하자는자도잇고
한번쓰함을결단하야사직과한가지로망하자는자도잇서々의론이분々하야결
단치못하더니문연각티학스도항이출반주왕제신의의론이모다불가하야이다만일
항복하오면오랑키는본리육심이만코신의가업스오니장츠그무한흔육심을무엇으
로채우오며만일로약의군스를모라승패를결우고저하오면이는알로써돌을치음이
라엇지완전함을바라리오신의소견에는빨리스신을보너리봉변을볼너도적을몰
니치게하심이상척일가하느이다던조—그말을을을히너이사즉시조칙을나려리봉
변을몰으시더라츠설리원수—오달의지를웨워쓰고엄살하니오달이당치못하야갑

흔밤에 심복제장을 거느리고 에움을 헛치고 다라나거늘 원수 군사를 모라싸려고 저
 하더니 셔북으로 스신이나는 다시 달녀오며 원수를 불으거늘 원수 말을 멈추고 기다
 리더니 스신 앞헤 이르러 조칙을 드리거늘 원수 말세나려 향안을 비설하고 조서를 읽으
 니 하엿스되 오랑키사가 길로 좃츠드러와 도성을 쳐앗고 황후와 티즈를 살오잡아 항복
 함을 요구하니 사직에 위티함이 조석에 달녘는지라 바라건디 장군은 수히 회군하야 사
 직을 구원하라 하엿더라 원수 왕기를 맛추미 분기충언하야 언스다려 일너 왕공은 문
 저도라가 소셔하고 즉시 좌익장장의 불너 십만군을 주어 디경을 구지직히 개하고 남
 은 군사를 급히 몰아 황성으로 향할시 주야비도하야 칠일철야만에 덩양에 득달하야 류
 진하고 황태제보일셔북디 동쪽을 패하 이러듯 육을 당하심은 도시신의 죄로 소이다
 흐티상이 크게 반기샤 곧사디 짐이 무덕함으로 사직이 장초위티홀터니 이제 장군이
 이르니 짐의 마음이 크게 위로되도다 하시고 누수 용안에 흐르시니 원수 또한 비감하
 야 데읍주왕신이 비록 무지하오느무지하오랑 개를 한칼로 버혀 패하의 근심을 덜니 이
 다하고 진중에 도라와 갑주를 정제하고 일만군을 잇그리 성밖헤 이르러 장사진을 치고
 원수 말을 니모라크게 위여 왕무지하오랑 개던시를 모로고 강성함을 자랑하야 도성을
 침범하니 그죄하날에 다엿는지라 엿지살아 도라가기를 바라리오 쌀이나와니 칼을 밧
 으라하니 운남왕이 디로하야 디선봉가을 추를 명하야 마자쓰호라하니 가을 추응성출
 마하야 마저쓰와 삽합이 못하야 원수의 칼에 죽으니 운남왕이 가을 추의 죽음을 보고 더

욱 분노하야 대장구비원수를 명하야 디적하라하니 구비원수 정창출마하야 마자싸호
 러하거늘 원수 우셔왕무지하오랑 개과 연현시를 모로고 강포함만 밧도다 하며 마저
 쓰호니 구비원수는 운남의 데일명장이라 창쓰노법이 신출귀몰하야 원수로 더부러 오
 십여합을 쓰호되 전연히 두리는 빗치업고 점々 정신이 썩하거늘 원수 생각하되 이
 는 진실로 법갓흔 장수로 다힘으로 제어키어려우니 지혜로 살오잡으리라 하고 다시 오
 륝합을 쓰호다가 말머리를 도리켜다라니 구비원수 급히싸로며 대호왕어린아히
 엿지 감히 어룬을 당하리오 슈히 항복하야 잔명을 보존하라 하거늘 원수 슈리를 다라
 나다가 홀연 말머리를 도리키며 대갈일성에 청강검을 들어 적장의 창을 막고 류성되로
 치니 적장이 조슈를 급하야 면문을 마자마하에 나려지거늘 원수 말세나려 구비원수의
 의머리를 버혀본전으로 도라와 구비의 머리를 놓흔괴스디에 달아 군사로하야 곧크게
 웨여왕을 담왕은 무죄존장슈를 죽이지말고 슈히 항복하라하니 운남왕이 구비원수의
 죽음을 보고 대경실척하야 성문을 구지닷고나지아니하거늘 원수 할릴업셔 말을 경계
 하야 왕 명사직이 위티함이 루란갓호니 네 비록 미물이니 또 하얏음이 잇슬지라 맛당
 히 용명을 다하야 성에 올라노하야 곧 성공케하라하니 말이 맛추미이 말이 원리룡쥬
 이라 한번 소사성우에 올으거늘 원수 청강검을 들어 문지힌 장수를 버히고 명진장졸
 을 불너드리니 그형제 티산이 문히 짐갓더라 덩병이 불의지변을 당함이 엿지 홀졸을 불
 나 목숨을 도망하야 산분쥬하니 셔로 밧아 죽는자 부지기 수러라 운남왕이 명군의

임성함을듯고대경하야급히말세올나동문으로닷더니원수—말을급히몰아운남왕
의갈길을가로막고크게썩지저왕이되로다라나려하노고갈을들어왕의탄말머
리를치니왕이변신략마하거늘원수—왕을사로잡아본진에도라오니운남군수—병
기를바리고진문에이르러항복하거늘원수—운남왕을진중에가두고선봉을보내여
던지를영접하야환궁하시게하고황후되셔니던에드시게하고원수—제장을
거느려조회하니상이되열하샤원수의손을잡고위로하샤왕집이무덕하야거의사직
을망케되얏더니경의충성을현업어도적을잡으니그은혜를엇지로치량하리오맛
당히던하를반분하리로다하거늘원수황망하야돈슈주왕신하되야견마지로를본
밧스음은신자의썩하호복을현업스와제장이효력함이오니엇지홀노신의공이라하
오릿고던하를반분하리라하심은신의불충함을던하에포박하심이니신이차라리국
법을당하을지언당황명을봉형치못하오리이다상이원수의마음이철석함을보
시고글—샤되집이경의대공을아람다히녀야장차던하를반분코져하엿더니경이구
지스양하니경의점양하는충성을위하야다시공을의론하리라하거늘원수—샤은
하고부장을명하야운남왕을잡아드려옥계하에살니고크게썩지저왕네조고마흔변
방오랑기로감히던위를범하야역던무도하니그죄살지무석이라엇지살기를발라리
오맛당히너를버혀던하를호령하리나운남왕이돈슈형죄왕신이불명무식하와이러

듯대역을범하오니죄만스무석이오니잔명을살오시면과천선하야조공을각근히
하옵고다시반심을두지아니하오리다하며무슈히이결거늘던하—척은히녀이사
글오사되네죄를싱각하면맛당히던별을더할것으로되특별히호성지덕을본밧아용
서하느니다시는참람흔뜻을두지말라하시고근시를명하사민것을글너던상에올으
라하시니운남왕이던은을감격하야복디주왕신이용우하와죽을죄를지엇습거늘황
상이여던지덕을드리우사막대지죄를사하오니고목이봉춘하온듯하온지라엇지
성은을각골치아니하오릿고하거늘상이위로하시고대연을비설하야운남왕을관되
하야보내실시원수왕신이운남왕을다리고남셔로나아가오달을항복밧고회국하야
도라오리이다상이유하하시니원수운남왕으로더부러남셔로항하야오더니이적에
오달이원수에업는틈을타서명진을급히치거늘왕의진문을긋게지히고나지아니하
니오달이힘을다하야벽계로엄살함이명진장을이능히되덕지못하야거의문허지게
되얏더니이적에원수—임의남셔에당도흔지라오달이명진을엄살함이만수위급함
을보고말을몰아대호왕오달은나의장수를곤박지말나하고공우밧치달너드러가니
오달이원수의이름을보고대경하야황망히군스를거두워다라나거늘원수—싸로지
아니하고바로명진에이르니장의제장을거느려진문밧게나와원수를영접하야장중
으로드러가셔로위로치하함을마지아니하더라원수즉시글일을닥가스신을운남진
에보닐시운남왕다려일너왕귀국대장이던하의명이업소오면필연밧지아닐듯하오

니 대왕은 또 한글월로 불으소서 하니 윤남왕이 그 말을 들으니 여즉시 한글월을 닦아 주거
늘 스신이 윤남전에 이르러 두 장글월을 낸디 오달이 밤아 보고 위연장탄왈 모스는 지
인하고 성스는 지현이라 하니 이를 두고 일음이라 다 슈십년적공이 일조에 허스되니
엇지 하날이 아니리오이제 우리 왕상이 살로 잡히샤 임의 항복하시니 다투지 가히 항복
지 아니리오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날을 우러러 기리 탄식하니 강기현과 상과 격렬한 위
풍이 강산을 삼킬 듯하니 더라 언파에 스자를 싸라 명진에 이르러 투고를 벗고 원문밖게 투
항하거늘 원수 — 천히나아가 영접하야 당중에 드러오니 오달이 윤남왕을 보고 머리를
두다리며 테읍왈 대왕이 함벽의 옥을 당하심은 소장의 불충무직하온 죄로소이다 하며
비감함을 마지 아니하거늘 왕이 오달의 손을 잡고 위로왈 이는 현시를 모로고 망녕도 허
움작인년과 엇지 장군의 과실이리오 현조 — 너브신은 덕을 나리시고 원수의 관후하
신혜택을 힘입어 죽음을 면하고 본국으로 도라가게 되니 우리 군신이 맛당히 기심력려
하야 하날갓흐신덕화를 감몸이 올도다 하며 위로하거늘 오달이 원수
를 향하야 칭사왈 아지 못하옵고 그릇된 위를 범하얏스오니 바라건디 원수는 용서하소
서 원수 — 위로왈 신조되야 국사에 힘을 다함은 당연한 일이라 무삼허물하리오 장군의
충용을 못니 추앙하더니 하날이 도으사 금일에 좌석을 갖치하오니 엇지 평성 소원이 아
니리오 하고 잔치를 베풀하야 윤남왕의 군신들은 근히 관덕하니 윤남군신이 원수의 관
후함을 못니 칭사하더라 잔치를 파하고 윤남군신을 보닐시 원수 윤남왕다려일너 왈 황

상이여 현저우를 더하야 대왕으로 귀국케하시니 대왕은 고국에 도라갈지라도 황상의
은덕을 잊지 말고 부하 여러나라를 통솔하야 각근히 조공하고 다시 외람흔 뜻을 두지
말으소서 만일 디왕이 허물을 못치지 아니하시면 후일 더욱 누리지 못하시리니 다왕
이 눈물을 흘녀 왈 엇지 감히 참람흔 뜻을 다시 두리잇가 과인의 평성뿐 아니라 맛당히
손을 거제하야 성현조의 은덕과 대원수의 혜택을 감호려하니 바라건디 원수는 성상
을 도아 티평을 일우시면 현의 창성이라도 또한 원수의 덕화를 입을가하느이다 하고 리
별을 서결언함을 마지 아니하거늘 원수 또한 연々하야 도히도라 감을 못니 일컫더라 원
수 — 윤남왕을 보니 고대군을 거느려 황성으로 회군하니 원로의 수령이 영접하고 전송
함에 분주하거늘 원수 지는 곳마다 요흔 말로 위로하니 원수 관후함을 칭찬치 아니리
업더라 여러날 만에 황성에 득달하니 현조 — 원수의 회군함을 들어시고 비관을 거느리
시고 십리도정에 친림하샤 원수의 발스함을 기다리시더니 이덕에 원수 — 현조 친히 거
동하샤 기다리심을 듯고 황공하야 말세나려어전에 복디하온디 상이 화문을 명하샤 원
수를 보드러 일회키시고 위로하시니 원수 현을 못니 추사하고 환궁하심을 주달하야
성중으로 드러오니 그위의 기록한지라 만성남녀의 구경하는자 그수를 아지 못할라
원수 현조를 되서 환궁하니 이날 현식이 임의는 족는지라 상이 글으샤 디명일에 대공을
의로하야 봉작하시니 경은 물너가 편히 쉬고 일즉이 조회하라하시거늘 원수 — 월문밖
게는 오니 원전에 스쳐를 명하지 못하니라 주인을 명하려하더니 상이 이 말을 들어시고

즉시하고 사별궁을 스송하시거늘 원수 — 연은를축사하고 별궁으로 하쳐를 옮기니 그 위의가 장씩々 하더라 이날 밤에 원수 등축을 북치고 홀로 안자성각하되 명일은 팔연 공로를 의논하야 벼살을 더하시리니 이를 장차 엿지하리오니 세절박하야 음양을 밧고 위황상을 의망하얏스니 그 죄도 망거어려우니 여간 공로가 잇스니 이는 공으로 죄를 속하려니와 원수를 오히려 잡지 못하얏스니 전후형스 — 무엇을 위하엿는뇨 속하도 전설에 무삼죄를 지엇관디 금성에 이르러 별을 밧는뇨 며숨은 눈물을 금치 못하다가 홀연히 석다라 글오디니 남북을 치차하고 황상을 의망음은 도시운공부조의 원수를 잡기 위함이라니 맛당히 표를 내려 전후형스를 낫々 치주달하고 심중에 품은 소원을 일우면 비록 천참만륙을 당할지라도 또한 앓가을바이 업도 다하고 붓을 들어 표를 지으니 그 뜻이 의원 처창하야 속품을 먹음지 아니리 업더라 초설던조 — 일즉이 황극면에 면좌하시고 원수의 입노함을 기다려 공을 의논하야 벼살을 봉하려 하시더니 문득 근시알외대 원수 리봉빈이 표문을 나니 다하거늘 상이의 아사 함으라 하시니 그 표에 글왔스되던 하병마대 원수 겸문연각티학스병부상서 신리봉빈은 돈슈빅비함음고 표장을 황폐하세옵니옵니 신이 본리에 남조 — 아니오 전임리부상서 신리종치의녀음더니년과 칠제에 신의아비 병부상서운종의다달운과로더부러진 전지의를더함음의구들이 금석갓습거늘역신강희미파를보니여구혼함음는지라 신의아비운가로더부러더혼호스연을일으고허차아니함엇습더니참인이망극하야운종을무단히모함하여절감

으로당비되개함음고천금으로도저을유어종로에서목숨을히함과슈중원스개함오니 신첩의아비운종부조의참스함을듯습고 신첩의전정을싱각하야울々성병하야세상을바리옵니 신첩의어미그뒤를쫓초오니고혈호은신첩의일신이던디스방에의탁이업스온지라역신강희신첩의고단무의함음을업슈히녀여간신을부동하야거짓병폐를신첩의장렴중에넛코신첩을갑박코저함음이신첩이비조설향의총의로되신함음을힘입스와히로지욕을면함음고남북을환차함과병쳐업시가옵다가황던이신첩의정경을가공히녀이사선인을지시함심으로강서싸한어스집에의탁하오니그간만고풍상을엇지다과록하오릿가신첩은듯스오니살부지슈는불공디던이라하오니강희비록신첩의아비를죽이지는아니함하얏스오니또한강희의함음은여얼로인하야죽엇스오니엇지천히죽이는달음잇스오릿가신첩이혜아리오니녀조의형석으로엇지능히지원극등을갑홀도리가잇스오릿가그러함음으로만스지계를싱각함과음양을변함음고외람히과거에참방함과성총을의망하오니과시에강희또한신첩을보고리증치의아달이아니라함음다가던위진로함심을어더맛춤니원찬하오니신이던은을감격함음이엇지가히잇스을잇가심중에밍세함음기를맛당히견마의황성을다함과성련조의여련지은을만분지일이라도보답하오려함음더니맛참은남이반함음고제신의천거함을엇스오니신첩이니심에일으기를금일이황상의함은을보답할날이라함과감히던병을거느려반적을정하오니성상의널브신덕력으로제장이용명함과도

적을 평등하니 황상은 신첩의 소정을 통촉지 못하시 고 장충상을 나리우샤 약간 공로를 포장하시려하시오니 신첩이 생각하옵건대 일즉이 본정을 유달하와 괴망한 죄를 당하옵니 맛당하온지라 그러하옵므로 감히 진정을 유달하오니 복원황상은 부월의 버힘을 더하샤 신첩의 무상하음을 다스리시고 강회부즈를 버히시오면 신첩이 구천에 도라가올지라도 폐하의 여련하심을 다스리시고 강회부즈를 버히시오면 신첩이 구천에 하옵기를 마지아하오리니 복원성상은 신첩의 지원극동하음을 감히 살피소서 하엿더라 화기를 맞치미상이 크게 놀녀사 좌우제신을 도라보시며 글은 샤디 고금련하에 엿지 이러흔일이잇스리오하시며 악연하심을 마지아하시니 제신이 모다 놀녀신고함을 을모다 일것는지라상이즉시비답을나리샤 화문시랑으로 선언하시 고 즉시입조하라 하시니 화문이비답을바드러 별궁에 이르니 원수 한안을 비설하 고 북향스비 후에비답을받을시 화문시랑이 고성랑을나리 그비답에 갈왓스되 경의 표장을보니 지극흔 효성과 높흔 절행이 고금에 무쌍할지라 접이 효렬을 위하야 강회의 삼죽을 멸하려하느니 청은아 모념녀치말고 스자를싸라 입조하야 접의보고저하는마음을 위로할지어다성인도 권도잇느니 경의녀 화위남이 무삼허물이잇스리오그러는 경이녀즈물들으니 짐의 주석지신으로바라든마음이 허디에 도라감을한노라 하엿더라 화기를 맞추미 원수한연은이 망극하심을 못니 축샤하 고 화문을싸라 조회에 드러와 복디하온디상이 크게 칭찬할경의 효렬은가히 고인을붓그리지아닐지라 무삼 죄라하리오경의로심쳐

력을 생각하니 그정성이 가히하날을 감동할지라 하물며사람이리오 짐이 맛당히 경을 위하야 강회부즈를 버히고 그삼죽을 멸하려니와 경의 충의로샤 직을안보하시니 맛당히 연하를반분할지라 경은스양치말라하신디원슈황공하야 돈슈주왕 신첩이 진심하야 국가를돕스옵은신조의당연흔지분이오또 신첩이 폐하의 성덕을의탁하와 철던지원을잡게되오니 황은이여련하옵거늘이러듯하음을나리시오니 신첩이 몸돌바를아지 못하옵는지라 복원황상은 신첩의미충을성감하샤나리신명을거두시오면 신첩이 스싱간련은을 폐부에삭이리다하 고 돈슈례읍흔디상이 호궁을명하샤 원슈를붓드려 연상에좌를주시고 위로하샤 글은샤디 경의대공을 생각하면 비록련하를반분하느니 무엇이 앓가오리오마는 경이지성으로 겸양함이여 추하니 짐이여지로 권하기어려운지라 맛당히 일품벼살을봉하야 경의대공을위로하리라하시 고 즉시조칙을나리샤리봉빈으로금조광록대부좌승상겸릉도각리학사광평후를봉하샤 식읍삼만호를주시고 황금치단을만히상스하시니 승상이마지못하야 황금과치단은받고 승상과광평후인슈는도로드린디상이불윤하시거늘승상의를거스리지못하야련은을축샤하시니 상이대열하샤출전하얏던제장군졸을차례로봉작하시며금帑을상스하시니 군심이희열하더라상이다시윤음을나리글은샤디 짐이비록벼살을봉하미잇스니광평후의대공을삼분지일도감지못하얏느니 그원수를엇지시각이느머무르리오하시 고 형부에조칙을나리우샤 강회를불일니로잡아올나라하시더라 승상이황은을못니 축샤하 고

물너왔더니 슈일을지니여 강희를잡아왔는지라 상이 승상을불으시거늘 승상이 궐내에드러가복디하온디상이골은샤디역신강희를잡이유스를명하야쳐참하면경의마음에쾌하지못할지라 특별히경에게붓치니경은마음디로할지어다하시거늘승상이런은을감읍하고물너나와친히강희를버힐시문득 동희통왕의말을싱각하고다시궁중에드러가주왕은종이당비하을뉘에강희가천금으로절강스공등을주어은종부즈를모히하온지라 신이은남을정벌하을뉘에오달의계교에속아굴함에싸졌습더니루왕의구원함을해입스룽왕부에드러갓습더니룽왕이신첩다려이르기를절강스공마졸등이강희의죄물을담하야은종부즈를슈중에서모히하얏느니원슈를잡흐라하옵거늘신첩이밋쳐알외지못하얏스오니 복원성상은마졸등의죄를다스리게하소서하디상이골은샤디짐이엇지일키스공을앗겨서경의원수를잡지아나하리오하시고즉시형부에조칙을나리시니형부조칙을받들고성화갓쳐절강에이문하야마졸등을잡아이르거늘승상이다시형구를갓초고마졸을몬져잡아드려살니고여병대졸왕네오륙년전에강희의죄물을받고은상서부즈를슈중에서죽임을싱각하는다하니위염이추상갓흔지라마졸이혼불부신하야감히은회치못하고거오정신을차려고하야왈소인의죄는만스무척이로소이다 소인이금일을당하야엇지감히일호나괴망호오릿가기시에강각로천금중상을주시며여츠츠하하하시니 소인이비단지물만담을뵤안이오라대승상의위력을엇지감히거역하리릿가그러하옵으로만스지죄를지엿

스오니복원상공은하정을동찰하소서하거늘승상이다시하령하야마졸의여당을물수이잡아들이라하니옥리심여인의적도를일시에잡아들이거늘승상이무스를호령하야엄형국문하니마졸의초스와일반이라승상이로괴충연하야마졸등십여인을모다쳐참하고다시강희를잡아들여압해살니고청강검을들여강희를향하야여성대미왈네버살이일품이오부귀일국에웃듬이라무엇을구하야구하지못하리오너도또한일죽이글을읽었스니넷일을알지라네척에출추뉘에송강왕이라하는인군이그신하흔빙의안히를보고마음에흠모하야한빙을살히하고그안히를취하려하더니한빙의쳐절기를직히여더러운육을받지아나하고죽으니지금가지그절형을청송하고강왕의형실을썩짓지아나하는이업거늘네감히위권을자랑하야무죄한스람을이막히죽이니런디신령이엇지무심하시리오네은상서부즈만모히할뿐아니라그로인하야우리부친이인병치스하시고모친이마자그뒤를쫓츠시니이느불공디런디수라엇지일호느용서함이잇스리오하고무스를명하야강희를형구에놓히미고승상이죽시니복을환차하고손에청강검을들고하날새죽문을고하니그죽문에하얏스되모년모월모일에금즈광록대부검룡도각티학스광평후리봉빈은감히우르려런디신명씩북히고하옵느니은종부즈신첩으로말미암아만고소인강희의게참소를당하와무죄히절강창파에어복종고흔이되오니신첩의부모또한이로인연하와일조에구물하온지라신첩이다른형데업삽고강근지친이업스온혈단신이여츠츠지원극등을당하

오니 엿지 원수 갑기를 바라 리릿가 좌스 우상 하야도 별로량척이 업스 온고로 감히 음양
을 변하고 과거에 참여 할와 벼살이 일품에 이르음으로 금일에 궁던지 동을 잡게 되오니
이 엿지 황던 후도의 외로운 정성을 구버살 피심이 아니 시리 잇고 감히 삼가고 하옵느니
복유신명은 미충을 살피소서 하고 회기를 맛추고 일어스 비호후에 칼을 들어 강희를 가
라 처알나 도타인의 죽식을 죽였스니 너도 또한 네 죽식 죽는 양을 보미 맛당하도다 하고
강희의 아달 강도를 잡아 들여 세워놋코 그 얼굴을 찢고니 그 형상은 참아 보지 못할지라
강희 울며 이길 알나 의외는 만스 유경이 어니와 아야 무삼 죄가 잇스리 오차라 리우리
부조를 슈히 죽이고 오리며 무지 말으소서 하거늘 승상이 대로왈네 죽식이 엿지 무죄하
다 하리 오이 짐성으로 인연하야 무죄 홀복숨이 만히 상하얏스니 그 죄를 생각하면 비록
천참만륙을 할지라도 죄가 오히려 남아지 잇나니 엿지가 뷔야이 죽이리 오하고 달녀드
러 강희 부조의 비를 갈으고 간을 너여 운공 부조의 형위를 비설하고 제문지어 처제하니
그제문에 하엿스되 모년 모월에 천첩리 봉빈은 운상서와 운공조령위에 감히 원수
의 간담을 밧드러 처제하옵느니 숭포다 량가 부모공조와 죄첩으로 비년가 괴를 명하
신 후 불행하여 소인의 참소를 입어덕소로 가사다가 어복에 장스하심을 당하심이 부인
이 또 한 뒤를 좇추기 제하시니 죄첩의 부친이 첩의 정경을 가궁히 녀이사 주야로 인원하
사다가 구천으로 도라가시고 모친이 짜라기 제하시니 년천하온녀조의 일신으로 엿지
능히 세력이 혼던하는 강희를 당하오며 구던에 스모 친원한을 엿지만 분지일이느니 갑스

오릿가 백이스지 하와도도 혼계척이 업스 온지라 원한이 흥겨에 막힐싸름이 읊더니 소
인의 흥계갈스록 더욱 망극하와 간인으로 더부러 연장 접두하야 강적의 빙폐를 죄첩의
장렬중에 감초고 죄첩다려 일으기를 강적의 빙물을 밧앗다 무칭하고 강적이 백주대도
에 건장 활창 두를 만히 거느리고 죄첩의 침실에 돌입하야 행로지육을 더하러 하옵거늘
죄첩이 분함을 억이지 못하와 벽상에 걸린 보검을 잇그려 간인의 손을 치오니 무슈하온
도척이 흥흔 슈단을 너여 겁육하러 하옵더니 다행비조 설향의 충성이 백일을 사모침을
힘입스 와 제몸으로 되신 하와 강적을 속이 음으로 죄첩이 호구를 버셔나오니 불행중다
행이 오느고 혈하온녀조로 중문을 나지 아니하다가 졸디에 문밧글나오니 던디가 비록
너르 오나 지향하바를 아지 못하온지라 향하바를 모르고 천신만고로 여러 날을 도로에
방황하옵더니 황던 후도가 죄첩의 정경을 궁척히 녀이사 온인을 지시하심으로 한어스
부인의 인조하온은 덕을 입스 와 일신을 의탁하오니 몸은 비록 평안하온느 철던지 한을
싱각하오면 엿지 일시느 잇침이 잇스오릿가 여러가지로 싱각하오니 협력의 일을 효칙
고저하오니 연약하온녀조 엿지 박랑 철퇴를 바르더지 오릿가 만일 오중부거하오면 여
적의 독슈를 면하거기 어렵스 온고로 감히 괴군 망상 지계를 싱각하와 본적을 감초고 남조
의 의관을 벌허 관거에 참여하오니 던은 이 망극하와 죄첩으로 불조하다 아니시고 혁々
하온 중임으로 맛기사 주석지신으로 대접하셔오니 죄첩이 고의로 화상을 괴망코저하
음은 아니 오나 죄상을 생각하옵건디 만스 유경하온지라 성은이여던하심을 폐부에 삭

이와 견마지로 초척하야 성은을 만분지일이리도 보답하옵고 지원극통을 설치하오
면 비록 조석에 죽을지라도 여한이 업스리라 하와 주야로 창던적 추슈하옵더니 맛참은
남이 반하야 디경을 침범하옵거늘 제신이 죄첩으로 장수지지가 있다 하와련 폐에 추천
하오니 성상이 죄첩의 무상하옵을 니치 아니하시고 곤외의 중임으로 맛기시니 죄첩
이 황명을 밧즈옵으로 전々궁々하와 감히 계을니 못하옵고 심녀를 다하오니련 디신령
이 죄첩의 변々치 못하온 정성을 감동하사 다형히오 랑키를 평당하오니 국은은 조곰이
라도 갑툼이잇스오니 스々원수는 겨를치 못하온지라 진정을 토하야련 폐에 주달하오
니 성상이 여련지은을나리우사 죄인을니여 주시옵으로금일에 불공대련 지수를 밧일
지하에 광명당대히 갑스오니 죄첩의 지원이 필하얏스온지라 다시 무엇을더바라오릿
고 비록 지금 죽을지라도 구원에 도라가는 씨에 구고와 공조씨보일면 목이잇스온지라
복유존령은 죄첩의 정성을 휴하옵소서 하엿더라 제를 파하고 일장을 통곡하다 그간을
너을고 유스를 저축하야 강희의 삼족을 멸하니 그상 패함을 누아니 칭찬하리 오승상이
결니에 드러와 옥계에 복디하야련은을 추사하온디상이 그출련호효를 못니 칭찬하
시거늘 승상이 다시 주알네날에 한신이는 일식지공도 천금으로 갑혔습거든하물며 목
숨을 구원하온은덕이 리잇고 신첩이 죽스을 목숨이 룡왕의은덕으로 살앗스오니 그은
혜를엇지 갑지아니하오릿가 하디상이 글으사 디경은가히은혜를저바리지아니하는
스름이라하리도다 룡왕이비단경의게만은덕이잇슬뿐아니라 대명의종묘사직이또

한그도음을 입엇스니 짐이또한그은혜를갑홀지라 특별히스신을보니여 룡신의게 제
하려하느니경의 뜻이엇더하노승상이 주알이는불가하여이다 성상이 만일스신으로
치제하시오면신의정성이소홀할가하느이다상이그말을올히려이사빅미일빅석과
치단이빅필을스급하시거늘승상이사은하고별궁에도라와그날밤을치니고잇흔날
말하야한어스집으로향하니저는바혈읍수령의영접하고전송함이왕자에비할
러라여러날만에득달하야부인씨보오니부인이못니깃버하야전진에구치할과공을
일우고기가불너도라옵을무수히치하하시고글오디로신이잠간들으니여츠々々
하다하니그말이과연덕실하나하시거늘승상이드디여조치중을낫치고하니부
인이청과에회한함을못니칭찬하시고차탄함을마지아니하시더라익일에승상이각
쳐도스와승니를모르고일너왈이제운상셔부조를위하야수륙도장을비설하고또동
히 룡왕을위로코져하느니그물지를해아려드리라하디제승이고왈빅미슴빅석과치
단이빅필이면죽하여이다승상이점두하고죽시킵일하야소입물력을절강으로보니
여도장을준비하라하더라츠설은공조로구에집에잇서부친병환을지성으로구하
나조곰차도업스미주야는물로세월을보니더니일々은로고일오디공조부친의
병환을지성으로구호하되종시차도업스니공조의정경이가련흔지라로신이비록
빈한하오니조석지공을극력하야이우리니공조는병척을써지말으소서하거늘공
조사례알무단한스람이일시운쉬불행하와주인의이우를과도히셋치오니불안한

마음이 가히 업슴거늘 니치지 아니하시고 이처를 말삼하시니 그 은혜 하날 갓스온지라 만일 신명이 구버보사 부친의 병제 회복하시면 여던대은을 비록 마정방중을 할지라도 만분지일이느 갑스오리다 하고 그 후부터 양식 구걸하기를 쓴치고 지성으로 구호하니 일々は 공조 몸이 피곤하야 잠간 쯤을 더니 일위 소년이 금관옥대에 우의 홍상을 입고 손에 칼을 들어 강희부조의 간을 닦으며 거늘 놀나 쇠달으니 남가 일몽이라 즉시 부친께 몽스를 고하니 상셔 놀나 왈 나의 몽스 또 혼여 츠하니 고이 하도다 하시더니 이로 좃츠병제 차도 잇서 점々 평복되더라 저 설승상이 수록제구를 츠려 강변에 나가 수록도장을 비설할시 동편 제단에는 동희광연왕을 위하고 중종상덕에는 삼십삼련이 십팔수 디부심왕을 위하고 중종하덕에는 명스 귀졸십방라 혼을 위하고 남편 제단에는 남희광덕왕을 위하고 충양상충에는 운상셔부조를 위하야 여러 도스와 모든 승니가 가스를 메고 제금을 두다리며 남무아미타불을 불으며 설법하니 그 소리 요량하야 형운이 비회하며 강수머무는 듯하고 희미 혼안기스면에 저옥하더라 승상이 향수에 묵욕하고 분향지 비하야 축원을 맞치고 강변으로 왕리하며 운공부조의 극락제계에 환성음을 발원하니 일석이 던중에 오르며 푸른 안강를 덮흐니 엇지 저척을 분변하리오 승상이 안기를 헛치며 나가더니 문득 일엽편주에 사향머리 혼녀 동량인이 옥저를 불며 오다가 강변에 이르러 비를 물가에 다치고 손을 들어 청하야 왈 낭자는 잠간 비에 을으소서 하거늘 승상이 아모란 줄 모르고 비에 오르니 녀등이다 시옥저를 불며 비를 저으미 빨으기 살갓더

라이 옥하야 혼곳에 이르러 나리라 하거늘 승상이 비에 나리며 스면을 살펴보니 연디 명랑하고 산명슈려 혼데 일위 선관이 구름속에 비를 붓고 안젖다가 승상을 보고 반겨 마조며 왈 봉빈아 네나를 아느냐 하거늘 승상이 레하고 공경되 왈 인간 범골이 엇지 선관을 알릿가 선관이 소왈 봉빈이 나를 모로는도 다하고 죽사녀 등을 명하야 차를 올니거늘 승상이 바다마시니 정신이 상쾌하야 기쁜 꿈을 서로 엮다름 같으니라 그제야 구류선관인 줄 알고 다시 절하야 왈 첩이 인간에 적거하옵니 고행이 삼가옵은 조연당하옵을 일이라 타인을 원할바 업습거니와 운공조로 더부러 백년약가이 중하옵더니 시운이 불행하와 운상셔 소인의 찰소를 맞는 덩리가 읊다가 절강에 이르러 참혹한 화변 당하야 죽스온 곳으로 운흔 비를 위로코저 하와 강변에 수록도장을 비설하옵더니 맛참 선동을 맞나야 도년임의 아노라 년전에 운상셔부조 도적의 화를 맞는가의 죽게 되었기로 동조로 하야 고품구하야 보니 엇스니 창곡에 놀닌 혼이 병이 되어 병제 침중다 하더니 지금은 아지 못하느 살앗심을 엇지 괴필하리오 그러는 서편으로 이천 팔백리를 가면 운상셔부조를 맞느리라 하고 병능과 환약 두 봉을 주어 왈 네날셔 왕모요지 연애 옥데 명하사 봉빈의 부모 비명에 죽었스니 이 약을 주어 환성케하야 봉빈으로 하야 고품다시 부모를 섬기게 하고 운괴의던 덩연연을 일우게 하시기로 이 약을 줍느니 만일 운상셔 죽었슬지라도 이 약을 여츰스하쓰면 너의 부모와 운상셔 환성하리라 하고 가기를 지촉하며 혼연

보이지 아니하거늘 승상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하고 옥호와 약을 거두어 운덕에 나리니 운무중으로 서홍의 입은 스자나 오며 읍하여 왕승상은 그간 무양하시니 낮가우리 대왕이 청하시더니 다하거늘 승상왕대왕이 누구시며 청하심은 비록 감사하오나 진제 천종이 엇지 감히 선경을 범하리 오호니 스자미소왕승상은 엇지이다 지점양하시니 낮고 하며 등에 업혀 청하거늘 승상이 지삼스양하다가 마지 못하여 스자의 등에 업혀 눈을 감으니 일진 청풍을 좇아 스자식간에 한곳에 이르러 나리를 청하거늘 승상이 그제야 눈을 들어 보니 이는 동희룡궁이라 전일에 보든 자 최완연하거늘 심중에 깃버하야 스자를 싸라 궁중으로 드러가니 룡왕이 승상의 이름을 보고 반겨 빙옥상에 나려 영접하야 면상에 죄를 덩하고 한 현을 맛후에 룡왕이 청사왕 조고마흔은 해를 승상이 잊치 아니하시고 기록하슈 룡도장을 배푸사 슈부로 하야 공명현이 되게하시니 그은 해여던하온 지라 스희룡왕이 모다 감격하야 과인으로 하야 공명하야 사례하노는 뜻을 표하노이다하고 즉시 잔치를 베풀하야 은근히 관덕하고 북은 구슬한지를 닦여 주어 왕승상이 운공조를 차자가 시면 공조필연상서에 죽임을 당하엿슬터니 이 구슬을 신례우에 언저 두면 비록 만년이라도 살이 썩지 아니하노니 이는 룡궁보비라 가져가 소서 속히 떠는 심이 비록 결연하오나 사실일이 요원하심으로 정회를 다 펴지 못하노이다하고 스자를 명하야 길을 인도하라하니 스자등에 오르게 될하거늘 승상이 룡왕께 하직하고 스자등에 업되러더니 숲시간에 절강을 당도하리라 승상이 스자를 향하야 슈고함을 치사하니 스

자무양하심을 당부하고 슈중으로 향하니 그가는 바를 아지 못할라 추시도 스와 승니 등이 바라보미승상이 운무중에 올라 나리는 듯하다 가형적이 업서 짐을 보고 모다 놀너 거늘 그중에 털관도 인이라 하노는 도스는 원력에 도술이 고명하리라 여러스 람다려 일너 왕승상은 범골이 아니라 선선의 품취만하노는 반드시 룡신이 청하야 길흉을 가라침이라 하더니 이윽하야 승상이 법석에 이르미 제승이 더욱 도스의 말이 분명함을 신기히 녀이다라 슈 룡도장을 파함의 승상이 여러도인과 제승을 추히 상스하야 보니 고나라에 표문을 올린 후에 옥호와 환약과 구슬을 가지고 룡총을 모라 셔 흘향하야 오더라 츠설운상셔병이 홀연다시 침중하야 박약이 무효하니 심도 망연하리라 공조의 손을 잡고 위연탄왈 전성에 죄악이 심중하기로 칠년 병석에 맞참니 효험이 업스니 이제는 다시 고향을 보지 못하고 천리타향에 원한을 먹음어외로 운호를 지으니 엇지 슬흐지 아니하리 오그러노이도 또한던수라 한하야 쓸티 업느니 너는 나 죽은 후 고향에 도라가 너의 모친을 피서리 소저를 취하야 조선향화를 쓴치 말나하며 연과에 눈물이 옷깃을 적시우더니 다시 일으되 나느니라 도라가느니라 의회골을 이곳에 두지 말고 선영에 안장하라하며 두세 번 짓기다가 명이 진하니 공조던디 망극하야 하날을 불으지즈며 방석동곡하니 산천초목이 다 위하야 슬하하노는 듯하더라 이척에 승상이 말을 모라 수일만에 한곳에다 스르니 높흔 산이 하날에 다 앓는 듯하리라 접々 길을 차차나아가니 초목이 무성하야 경기 절승하거늘 말세나려 잠간 쉬더니 홀연 산이 문혀 지는 듯하노 소리나며 금갑입은 장

스십여인이 산상으로 솟아 무수히 귀졸을 거느리고 내려와 승상을 에워싸고 크게 웨여
 왈 우리는 디부신장이라 이제 디부에 병단이 일어났기로 마귀에 미였더롱마 만리운을
 차즈니 간곳이 업는 지라련디 스방으로 두루 찾더니 이제 너의 탄말을 보니 분명히 만리
 운이라 이 말을 도로 주지 아니하면 너를 버리라 하거늘 승상이 대로 하여 말세 이르며
 대졸왕이 말은 동히 룡왕이나를 준 것이 어늘었지 여등의 말이 라하느뇨 하고 청강검을
 들어 십여신장으로 조응을 결단하니 승상이 비록 영웅하느릿지 여려신장을 디적하리
 오거의 피하게 되엿더니 홀연 일위로 인이 산상으로 내려오며 막디로 싸울 처크게 싸지
 즈니 신장 귀졸이 일시에 헛터지는 지라 승상이 말세 내려오인을 향하여 지비왕으로 인의
 은혜를 입어 대화를 면하니 이르니 산상 것흔을 장차 무엇으로 잡소오릿가 로 인이 소왕
 환란상 구함은 뉘하흔일이라 무식사례함이 잇스리 오그디의 탄말이 서히 룡왕의 데삼
 자라 일기 득죄하야 그디를 도오려 인 간에나 왓스느 인 연이 임의 마하고 그디만 로 인
 하야 파를 당하니 장차 십명이 위티 홀지라 그디를 위하야 가져가노라 하고 언파세 말세
 오르니 운무를 헛치고 공중으로 소스미그가는 바를 아지 못홀라 승상이 공중을 향하
 야 무수히 사례하고 두어거름을 오다가 홀연 성각하되 저로 인이 변신하야 산벽소로 가니 아가
 여가 도다 이 제 말이 업스니 장차 엿지하리 오주려하다가 강인하야 산벽소로 가니 아가
 더니 든득길 이히 미하고 대강이 가로막혔스니 엿지능히 건느리 오물가흐로 방황하더니
 홀연 광풍이 디작하며 물결이 흥々하온데 호즘성이 물결을 헛치고 나와 입을 버리니

북기 주호갓호며 랑인이 북은 구슬갓호니 그 모양이 가장 흉칙하니라 승상이 대경하야
 공순히 빌어왈 그디는 허종령신이라 엿지 스람의 스정을 아지 못하리 오바라 건디 길을
 빌니 면은 혜를 잊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즘성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크게 하야 왈 네
 가져가는 보물을 드리면 무스히 노아보느니라 하와 그럭치 아니하면 목숨을 헛치리라 하
 거늘 승상이 황급하야 다시 빌어왈 니 전성에 죄중하기로 부모를 일즉이 여의고 음양을
 밋고 외국가의 위티함을 구하고 백년언약을 밋치고 저하야 유々 장정에 혈々 일신이 외
 로히 발섭하다가 이곳에 이르러 산진수궁하야 디강이 막혔거늘 그디이러듯 핏박하니
 차라리 죽음은 당할지언당 그디의 소청은 시형키어려운지라 그디는 마옵디로 하라 하
 니 그즘성이 입을 버리고 다라드니 그형제 장차 칠듯하니라 덩히 위급하더니 문득 슈
 상으로 서일위선관이 처선을 타고 이르러 크게 싸지려 왈 무지흔 악귀는 봉빈을 헛치 말
 나하니 그즘성이 선관의 나려움을 보고 황급하야 슈중으로 드러가는 지라 선관이 승상
 을 청하야 비에 오르게 하고 고글오디 그디나를 아는 다스 상왕전계 천종이 일즉이 선경에
 이르지 못하엿스오니 엿지 알니 잇가 선관 왈 그디 옥경을 하적하고 인간에 나려옴이 연
 화에 상흔 되여 네일을 괴어지 못하도다 그디 옥경에 잇슬씨에나 로 더부러가 장천밀
 하기로 옥데의 전지를 밋와 그디를 위하야 길을 인도하노라 하고 옥저를 닐여 흔곡조
 들부니 맑은 바람이 습々하야 비를 잇글뒹쌀으기 살갓더라 흔곳에 이르러 비를 가에다
 히고 승상을 나린 후 스일다시 봉을 괴악하고 일진 청풍이 되야 공중으로 오르니 간곳을

아지 못할라 승상이 공중을 향하여 신의 힘을 못지축사하고 청계를 떠다 점々 드러가
나치는 춘삼월이라 방초는 긴 언덕에 비단 자리를 편듯하고 양류는 신의가에 드리웠
슴이룩스장을 현듯하고 고백화는 곳곳이 만발하였스며 우는 새는 춘흥을 자랑하니 그
경이 절승하더라 신의가에 안자다리를 쉬다가 홀연 들으니 수림중으로 숨허우는 소리
은々히 들니 거늘즈연 땀에 비감하여 곡성나는 곳을 향하여 차차 드러가더니 숲삼보
를다가 지못하여 수간 초옥이 산을 의지하였는데 곡성이 그곳으로 좃츠나는 지라 문전
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니 높은 곳으로 나와 승상을 보고 물어 이르되 상공이 이 깊은 산중
에 누를 차르시는 곳고 승상 왈 나는 지나가는 길일려니우를 소리너 모히 창고를 들듯고 자
최를 찌라 이곳에 이르러 거니와 감히 못느니 어느 사람이 무삼일로 저다 지술허는 노
로고 그 말을 듯고 추연 안왈 이곳은 여남서성 현벽 배촌이라 칠년전에 일위 직관이 소년
공조를 다리고 물을 건너지다가 풍낭에 파선하고 수중에 거의 죽을 번듯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니 집에 이르러 일야를 투숙하더니 창과에 놀닐흔이 병드러 날로 침중하니라
그공조지성으로 구호하는 황던이 무심하고 신명이 들지 아니하사 작야에 세상을
바리니 그공조망극하여 홀로 신대를 밋고 우느니라 거늘승상이 그말을 들으니
삼신이 황홀하여 우문왈 그공조의 성명이 무엇이며 어디를가다가 파선하였다 하더냐
가로고 답왈 직관이 그제세흔은아라 무엇하시릿고 공연히 듯기에 마음만 비창할싸 말
이라 하거늘 승상 왈 나도 스정이 쓸흔스람인고로 남의 숨흔 일을 보면 험을 다하야 구제

하느니 원컨디 근본을 자세히 아라지이다로고 답왈 죽은 사람의 성명은 운종이오 공조
는 운과라 하더니 다승상이 그제야 룡왕과 선관의 말을 생각하고 운공조 살았음을 드르
미 일회 일비하야 소리남을 섞다지 못하고 실성 통곡하니 운공조외와에 우름소리를
듯고 놀나문을 열고나오거늘 승상이 바라보니 비록 우썃스려에 형히가상하고 초풍
상에 풍도변하였스니 철세적에 중당에서 서로 보든 얼굴이 의아하니라 연망히 드러
가상서의 신례를 밋들고 통곡이 원하니 공조는 아모란 줄모로고 의혹함을 섞다지 못하
다가 승상의 우름소리 귀침을 청하고 공손히 쉬러 곧오디 칠년병천을 조석으로 구호하
다가 맛참니 망극지통을 당하온고로 심신이 혼미하고 귀를 귀로 지못하오니 용혈을
을쉬짓지 말으시고 고복하라 라치소서 승상이 눈물을 거두고 공경히 왈 첩은 오관티학동
리상서의 무남독녀 봉빈이라 철세에 공조로더부러량부모의 명을 밋드러 글을 지어 밋
약이 티산갓습거늘 공조엇지이지시닛가 공조그제야 자세히 살펴보니 리상서의
월티화옹이 분명하니라 공조어린듯하듯하야 심신을 덩치 못하거늘 소제왈 전후
슈말은 좋치고 하려니와 급히대인의 명을 구하오리니 너모숨허하지 말으소서 하디공
조더욱 슬허하야 왈 네말에 스자는 불가부성이라 하얏스니 엇지 소심하시게 하리오
소서나중으로 서구슬을 너여신례우에 노으니 이옥하야 성벽이 잇거늘 옥호를 기우
려이목을 씨스며 환약을 갈아 입에너흐니 얼마아니되야 저든사람 섞듯하는 지라 공조
깃뼉을익이지 못하야 소저제 청사왈 망천을이 갖치환성케하시니은혜 비골란망이

라 장차 무엇으로 갑스오릿고 소저 — 공경은 사왕첩이 비록 공조로 더 부러록례는 갖초
지 못하얏스오느 밍제 금석보다 구드오니 첩은 운상서의 조부라 구고의 병을 구하옵음
조부의 섣하얏일이 읍거늘 공조 — 엇지은 헤라 일갓느 닛고 상서 — 정신을 차려 속시만
향에 회음업시 눈물을 흘려 내나의 죽음을 엇지 알고 연々 약질이 남북을 기착하고 천
리 밧게 이르렀느뇨 소저 — 드되여 부친이 상서부조의 슈중원스하심을 들으시고 놀나
병이 되어 세상을 바리시미 모부인이 그 뒤를 따라 기제하심과 강희의 꺾박함을 입어 거
의 욕을 면치 못하러니 비조 설향으로 되신 고목난의 일을 흐칙하야 한어스 집애의 탁
하얏다 등과 하야 운남을 항복 밧고 강희부조를 죽여 원슈갑흔 일과 절강가에서 슈륙도
장을 비설하다가 룡왕이 청하야 약쥬든 일을 제하고 하니 운공부조 — 그 말을 듯고 신
의 힘을 못느 일갓더라 소제 다시 고하야 왕왕스를 생각하오면 한갓비창함만 더 할싸람
이 오니 밧비령릉으로 도라가 사존고의 슈야로 슬허하심을 위로하소셔 하디 상서왕네
말이 비록 당연하느령릉이 이곳에서 삼천여리라 인마와 반전이 업스니 엇지하리 오소
제디알그는 년녀치말으소서 하고 즉시여 남부에 공문을 보니 여제반과 구를 쥬비하야
벽계촌으로 되령하라고 하얏더니 지부 — 공문을 보고 황망히 구를 차려 거느리고 — 르
러 승상과 운상서세보이기를 청하늘의 관을 덩제하고 나가 마즈니 지부 — 레를 밧친후
에 본부 로드러가 심을 간청하거늘 허나하고 여남부에 이르니 지부 잔치를 비설하야 극
진히 관되하고 의일에 여남부 슈호병 삼백 명을 요발하야 운상서의 일행을 호송하니 그

위의 기록하더라 길을 떠날시 운공조 — 벽계촌로 고다려 일너와 그 뒤의 하히 갓흔은 덩
이 아니로면 오날 수영화로 하도라 감이 업슬지라 하날에 다흔은 헤를 갑고 저하니 비록
마정방중을 지라도 능히 다 잡지 못하거니 청컨디 한가지로 고향에 도라가 여년을 밧춤
이 엇더하시뇨 로고 글오디 집이 빈한함으로 곤고함이 심이 만스오니 닛심에 불안함
이 만습거늘 엇지은 헤라 하시느 닛고 그러느로 신이다 른조녀 업습고 나히 임의 하얏스
오며 또 칠년동거하던 정리를 일조에 떠느기 결연하오니 맛당히 공조의 두터우신 뜻을
쫓츠리이다 하고 상서의 일행을 따라 오더라 행흔지 십여일만에 호서현에 이르러 소저
상서세고하야 왕첩은 문져 황성에 드러가던 조현하옵고 부모묘하에 나가 선관
이쥬든 약을 쓰려하오니 대인은 령릉으로 가소서 하고 인하야 말을 쥬촉하야 슈야비도
하야 삼일만에 황성에 득달하야 옥계에 복디하온디 상이 크게 반기사던상에 좌를 쥬시
고 글으사디 경의 표문을 보니 운상서부조의 종적을 차즈려가노라 하더니 그간 고초를
얼마느 겪것스며 파연맛느 보앗는다 승상이 전후슈말을 낫스치쥬달하니 던조 — 드르
시고 신의 허녀이사 크게 칭찬왕경의 출런지효절은 만고의 무쌍하리로 다하시더라 승
상이 꺾문 밧게 나와 즉시부모묘하에 이르러 관곽을 헛치고 살피보니 신례의 살이 임의
모다 썩엇거늘 성기슈를 병에기우려 비골을 써스니 살이 점스하야 여전하거늘 옥호
를기우려 이목을 써기고 환약을 갈아 입에 흘니며 구슬을 신상에 노흐니 성기점스도라
와이옥고숨을 통하며 눈을 뜨거늘 소저 — 비희교집하야 부모의 수족을 슈무르며 실성

통곡왈 불초녀 봉빈이 왔느니라 상셔부자 정신을 차리미 몽중인지 성시인지 아
지 못하야 막막히 보다가 소저를 쓰러 안고 슬허우러 왈 네 죽어 혼이 우리를 차왔느냐
우리가 환성하야 너를 맛느보느냐 하며 오열하기를 마지 아니하시거늘 소저 — 눈물을
거두어 무수히 위로하고 되셔 부부도라와 지는 일을 려히 고하니 상셔부자 그제야
소저의 손을 잡고 비희를 견디지 못하야 이윽히 늦기다가 다시 등을 어로만져 칭찬함을
마지 아니하고 설향의 손을 잡아 그 충절을 못느 칭찬하니 비복등이 모다 깃버함을 마지
아니하니 일단 화과가 부중에 가득하더라 초설화부인이 운상셔부자 — 수중에 참스름
을 듯고 이 통함을 마지 아니하야 병을 일우워 거의 세상을 바릴너니 천척과 비복등이 만
단구호하야 겨오목숨을 보존하얏스느니라 화조월석에 미양슬허하야 눈물과 한숨으로 세
월을 보느니 그 형상은 산천 초목이라 도또한 비창함을 먹음을 지라 시비등이 민망히 지
니 더니 일々は 부인이 좌우다려 일너 왈 박명훈인 성이던디 간에 일시라도 머물지 못할
것이로되 여등의 지성으로 구호함을 힘입어 구초로히 잔명을 부지하야 남은 세월을 보
느니 더니 현명이 다하듯한 지라 여등을 오리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가하노라 하고 위
연히 탄식하니 시비등이 위로왈 이 무삼상셔를 지 못하말습시니 낮고 비록 여망은 업스
시오느스스로 위로하야 비세향수하실지라 무삼연고로 총몽세계를 번뇌하야 형히를
괴롭게하시니 고부인이 탄왈 여등이 모로노도다 상공께서 기세하신지우금 칠년에 몽
중에도 일정보이지 아니하시더니 작야에는 공조를 다리시고 표연이 드려오사 회색이

만안하시며 나의 손을 잡으시고 위로하시기를 그 동안에 외로운 슬흐물언마는 격것는
노셔로 맛날날이 머지 아니하니 왕스를 생각하미 일장춘몽이라 엇지 허탄치 아니하리
오호시며 반기심을 마지 아니하시니 몽스를 가히 준신치 못하리라 하면 모로거니와 만
일 밋붙이잇슬진디 나의명이 엇지 장구하리오 하며 못느비 감하니 시비등이 위로왈 이
는 부인의 마음이 흥상슬허하심으로 몽도 — 여초함이 오니 엇지 허탄하온 일몽으로 스
심을 판단하오릿가 바라건디 귀례를 보중하야 심신을 상히오지 말으소서 하더라 그러
는 부인이 몽조를 어든후로 심신이 황홀하야 기분듯 슬흐듯하야 마음을 진정치 못하더
니 일々は 부인이 밤에 잠을 일우지 못하고 전々 반측하야 날복기를 기다리더니 청신에
령작이 창압헤 이르러 세번짓거리고 날나가거늘 부인이 조탄왈 속어에 일으기를 려작
이지저귀면 깃분소식을 듯는다하니 나갓치 되만흔스람에게 무삼희소식이잇스리오
타인의게는 상셔라하느냐 의게는 이도또한한지앙이로다 하기를 마지 아니하다가 날
이느지미여려시비껏히 되시거늘 시비에가치저귀든 말을 일으고 길흉을 아지 못하
야 노쥬셔로 의하하더니 창두 — 급히 드려오며 부인제고하야 왈 박계군관나이르러이
되이운상셔되이나하더니 그뒤에 수백명의 군병이 일위히 초을옹위하야 뒤를 향하고
드러오스나 무삼일이온지 아지 못하야 고하느니다하거늘 부인이 대경왈 오늘날 새벽에
가치저귀기로니 일으기를 타인의게는 상셔가 될지라도 나갓치 박복하스람의게는
지앙이되리라 하얏더니 그말이 과연을도다 하며 비황하니 시비등도또한 무삼곡절인

지아지못하야 황々망조하더니 얼마아니되야 문밖기들며 일위로 관인이 소년공조
를잇글고드러오거늘 부인이 경황하야 피하다가 홀연도라보니 관인은운상셔오 소년
은공조운과라 부인이정신업시뛰어나려가공조를선려안고 방성대곡왈네죽어혼령
이왕나살아륙신이왔나하니공조또한붓들고실성통곡하다가부인을붓드러당
상에올나위로하니상셔또한눈물을흘리며위로왈인간고락이막비련슈라인력으로
면하지못하느니누를한하리오그러나과왕지간일이라 무삼일로다시슬허하야심
장을상히오리오왕스를셔로설화하며눈김을마지아니하고슈일전몽스와금일쉬벽
의령작의지저권이깃부일을문져보흔인줄알고신괴음을일카라우름이변하야우슴
이되니원근천척과리웃사람의치하분々하더라 초설승상이이스연을낫치괴록하
야상소하니황데보시고크게칭찬왈리본빈의일은갈스룩신괴하야고금에업도다하
시고족일에조칙을나리우샤리중치로오왕을봉하시고부인가씨로등왕비를봉하
시고운옹으로금조광록대부좌승상겸문연각학사를하시시고부인황씨로등숙부
인을봉하야밤비입조하라하시니승상이그스연을령릉으로통괴하더라오왕이겔니
에드러가옥계에복디하온디상이화문을명하야오왕을붓드려던상에올녀좌를슈시
고글은샤디경이총명에지의녀을싱출하야국가의위급함을붓들고문호를밧니여
영화그부모의게도라가고일흔이축벽에드리워천추에류전하고공덕이창성에더하
야스히에밧느니그신괴흔스적과출련흔효렬이 고금에무쌍흔지라경이비록일녀를

두엇스느영귀흔이타인의백조를가히부러하지아니리니엇지깃부지아니하리오왕
신디오왕이돈슈주왈이는모다황은이여련흔심이라소녀무삼공로가잇다하리오
고신이성명시디를당하와벽골에성육하야련안을다시되오니황상의응성하신련은
을비록간되도디하을지라도능히보답지못하리로소이다련은—룡안이대얼하샤글
은샤디운승상의입조흔을기다려맛당히대연을비설하야질기리라하시더라초설은
상셔—부부와모조—일실에단락하야우슴으로날을지니더니외에련스이르러조
칙을드리거늘상셔—황공하야향안을비설하고북향스비하야련은을축사하고조칙
을바든후잔치를비설하야련스를관되하더니소저의셔신니이르거늘형구를슈습하
야일을떠날시련스를문져도라보니고그뒤를싸라가솔파로고와비복등을거느려황
성으로향하더라 초설오왕과소저—운상셔의올나오는선문을듯고심리장정에나야
가마저서로반기고한가지로성중에드러와전일거쳐하던고락에이르니 늙은비복이
영첩하야드러가가권을당돈하고궁중에드러가복디청좌하온디상이소황문을명하
샤붓드러좌를슈시고글은샤디짐이불명하야소인의참소를신청하고충량을니치니
이는모다짐의과실이라경으로하야곰무죄히슈중원흔을지을번하얏다하니짐의무
도흔은결쥬의비겔것이오경의충절은룡방비간을싸를지니엇지경을디하기붓그럽
지아니리오그러는성인이일으샤디사람이누가허물이업스리오마는곳치는것이귀
흔이된다하시니과왕은허물하야쓸디업는지라일꺼르며도리여마음만상흔싸름이

니경은짐의불명함을허물하야바리지말고충성을다하야짐의잘못함을직언으로기
도하야한가지로승평을누리면엇지기부지아나리오하신티승상이황공하야테음쥬
왈신이무상하와충성으로폐하를돕지못하온고로니치심을당하오니신의불충완악
함을은스홍에서더하옵거늘폐하의성명인조하심ियो순에게는사신으로하야곰다
시련일을보게하시오니성상의호칭지덕이하날로더부러갓호신티라그은덕을보답
고저하옵진디호련이망극하오니신이비록분골쇄신폭오느무삼앗가울것이잇스오
릿가마는신의권마지년이철첩에갓갑스와이목이혼암하옵고정신이산란하오니엇
지능히성련조를돕스오릿가복원황상은성지를거두사신으로하야곰산슈간에몸을
바려성명을노리하게하시오면름성하신회은을받조음이이에서더지닐자—업슬가
하느이다하고좌승상인슈를을닌디처음에는상이불운하시다가그언스—간절하
고또임의늬음을민망히녀이사윤하하시고다시조칙을나려글으사디충량을표장하
고덕잇는자를상쥬은나라의셧하호법이라이제병부상셔운종의충량이빅관의웃듬이
오덕형이방국의표준이될만하고로짐이마음으로아람다히여여특별히금조광록대
부대승상표덕후를봉하고식읍일만호를쥬노라하시니승상이황공하야저삼점양하
다가련으을쥬사하고물너나오니오왕이즉시탁일하야봉빈의혼스를맛칠셧련조—
금은처단을만히상스하시고공쥬의례를쓰라하시니혼일을당함의조덕빅관이모다
모히지라그위의인신의처음이더라이날에소서—칠보봉관을쓰고체의를갓초니전

일에운남을정벌할새에는영웅의괴상이능하더니금일은례석에는옥인의티도—
연々하더라교비례를맞쥬디홍일이서산에서물거늘량인이동방화축에한가지로밤
을지니니쥬밀호정과담々호스랑이비힐디업더라삼일을지닌후위의를갓초와운부
에이르러구고해보일시폐빅을बाट드리니승상이우어왈현부의금일티도를보니
석일의피갑상마하야만군중에회형하든영웅이진짓일장출몰인가하노라소재그말
슴을듯고붓그러운빛치량미에잡기니침어락안지용과폐월슈화지된을엇지죽히일
게르리오진실로만고절염이라승상부々그모양을보고더욱두곳김을마지아니터라
소서—구고를효도로박들고군조를의리로섬기며천척을화목하고비복을인의로무
홀하시기리는소리원근에자々하더라초설련조—전일에리소서—남북으로한어스
집에의탁하얏슬새에한소제로더부러빅년가악이금석보다구름을드르신티라이새
를당하야량가에조칙을나리사한소제로운의들지부인을삼으라하시니량가—황
은을감격하야즉시길일을탁하야빙폐를전하호흔인을맞쥬니한소저의덕형과저모
또한리소저의버금이라구고의사랑함과군조의귀중함이그지업스니운씨의복록의
무량함을취아니칭션하리오리소서—한소저다려일너왈첩이부인으로더부러전일
에동방화축에막々히안자심호을가만히살오를생각하니진짓동원호접이로다네날
에자쥬가호접이되고호접이장쥬—됨을아지못하얏다하더니이제첩은일기리봉빈
으로위남위녀하야천금소저를제반으로희롱하니그죄를도망키어려울지라바라건

티부인은용서하사허물치말으소서하고언과에우슴소리낭연하니한소서—또한량
협에홍조를씩우고우어왈그는괴왕의지나간일이라일장춘몽으로도라보되려니와
바라건디소저는다시리공조로변하지말아셔첩으로하야곰동가식이셔가속하는슈
고로움을면하게하소서하고설과에두소서—가々대소하니이후로두소저의셔로스
랑하고중히여임이골육갓흐니칭찬하지아니리업더라초설상이인자를갈회고저하
사알성과를보이시거늘은공조—여러선비를압두하고회화대일지를씩그니상이아
름다이역이샤인현하시고장원금대를제슈하시고총형상심이날로름성하샤일년이
다지너지못하야여러벼살을지니여리부상셔에이르니은성의스람됨이충근하고영
직하야인군을의리로섬기고동렬을레도되접하니명망이조야에가득하야스회의
추앙함이티산북두에나리지아니하더라각설티산적왕등십여인이무리수천을모
아강회사이로출몰하야디방을요란케하거늘상이예주자스에게쇼셔를나리샤도적
을살오잡아디방을안당케하하하시니예주자스진응이티산티수에이문하야도적을
정벌하라함이티산티수공천이도병을모집하야도적으로더부러싸호다가왕항의부
장여규의죽인바이되니도적이더욱창렬하야군현을임습하며촌락을로략하니란민
이닷도와붓쫓치미순월지간에무리스오만에이른지라예주를에워싸고치거늘예주
자스진응이오천관군을거느려도적을막다가도적의계교에속아성이문혀지고관군
이대패하야진응이살오잡관바—된지라도적이갑박하야항복하하거늘진응이골

하지아니하고도적을사짓다가맛참되히를당하니적제더욱호대하야항하는바에당
홀차—업스니성민이도탄에드러스방으로호터지니강회사가어언간에적굴이된
지라양주자스의표문이날로이르려도적제하하거늘천조—근심하샤제신
다려일너골—샤되도적의형제자못강성하니광평후갓흔자아니면능히진압하지못
할지라이를장차엇지하리오하시며근심함을마지아니하거늘리부상셔은괴출반
주왕선이비록무지하오노일려지스를주시오면도적을멸하야성상의근심을덜니이
다흐티상이대회하샤죽일에운기로예양초도스를하시시고정병일만을주시거늘상
셔—샤은하고부중으로물너와승상량위제하직을고하고리소저침소에이르려도적
정벌하러감을일으고계책을물은디리소저왕병셔에닐넛스되유능승강하고약능제
강이라하얏스오며또고인이일으기를티강즉결하고티유즉페라하오니대다장수되
는법이능강능유하고지진지되하며상별이분명하고은의가병형호연후에야능히성
공하느니장수되는법이대략여초하온지라군스의일은먼리혜아리기어렵스오니군
조는그형제를싸라제어하실지니이다그러하오나첩이듯스오니강회자민이그한을
견디지못하와류리하옴거늘디방을직히는자—무홀치아니하고도리여위협하오니
괴곤한백성이도라갈바를아지못하야무리를취합하야조석지명을보존함이라엇지
그본심이불량하야란리를즐거함이리오만일졸연히핍박하오면도적이진퇴유곡이
라필연죽음으로관군을대적하오리니만일관군이실슈함이잇스오면도적의형제더

육창월하야 일조일석에 능히 박멸치 못함을 지라 국가의 대환이 되리니 이제 군자는 궁
구로 더 부러갈 날을 닦고 말으니 고우허의 네 일을 호척하야 그 마음을 항복받게 하소
서대인 군자의 귀 모신척은 아지 못함옵거니와 첩의 어린 소견에는 이것이 상척일 듯하
오니 군자는 첩의 말을 믿을 겁히 드소서 상척을 연히 이르러 두 번 절하야 왕부인의 말씀
을 들으스오니 흥금이 상패하야 취한 사람을 시로 쳐 죽인 것이라 삼가셔라 치심을 밧으리
이다 하고 회군하야 양주 지방에 이르러 류진하고 적과 왕항의 잇는 곳을 탐지하야 종자
슈인을 다리고 단거리로 왕항의 진루에 이르러서로 봄을 청하니 왕항이 대경하야 피하려
하다가 초토스단거리로 왔음을 들었고 아하야 갑주를 갖초고 좌우에 장수를 명하야 창검
을 베흔 후 초토스를 청하야 드리거늘 상서 조곰도 두리지 아니하고 앙연히 드러가니
왕항이 여성왕그디 초토의 조칙을 밧았슨 즉 맛당히 칼날을 사피여 승부를 결을 것이 어
늘 무삼 일로 보기를 청하야 노 일을 말이 잇슬진디 저 세히 할지 어다 만일 스리에 합당
치 아니면 검하지 혼이 됨을 면치 못하리라 하고 언파에 의상이 씌하야 마호가 절벽에
거러 안조 소리 지름 갖거늘 상서 우어 왈 니 조령에서 그디의 성명을 들었고 영웅의 조품이
잇는 가하얏더니 금일 서로 보니 진실로 소견이 불여 소문이라 산림 초구의 일홈을 면치
못할 지어늘 디방의 조목 지신이 장슈 조목이 업서 사성명을 속절 업시 바린자 만흐니
엇지 한흠지 아니하리 오왕항이 그 말을 들었고 더욱 더로 하야 크게 소리하야 왈 엇지 일아
미요 상서 왈 니 드르니 진실로 용맹이 잇는 자는 괴상으로 타인의 두림을 구하지 아니

하고 큰 지혜가 잇는 자는 졸한 듯하다 하니 이제 그디는 한 사람을 두려서 갑주를 갖초고
유위부족하야 좌우에 병기를 배운 후에 감히 나를 청하야 드리고 밀려온 적을 쳐서
지어 위풍을 자랑하니 이는 라약한 자아비와 아녀자를 더하야 놀치 이는 슈단이라 엇지
덩인 군자를 더하는 데면 이리 오이로 볼진디 그디의 용맹이 업고 지혜가 부족함을 가히
알지라니 그릇되고 필부의 손에 죽게 되니 이는 저 취지환이라 다시 원할바 업거니와
나 죽은 후에 수만의 무죄한 인명이 싸라 죽으리니 엇지 앓갑지 아니리오 왕항이 청필에
연망히 좌우를 호령하야 병기를 물니치며 상서를 밧드려 상좌에 안치고 투고를 버스며
두 번 절하야 왕로 망한 필부가 눈이 잇셔도 티스를 보지 못하야 대인을 통명하오니 만스
유경하오니 지라 바라건디 대인은 언디부지 지은을 드리우사 죄를 용서하시 고 성도를 가
라치소서 하거늘 상서 황망히 답례하고 갈오디 이제 성현조 우혜계사 공검인 조하사
사민여상하거늘 소위 조목 지신이 성의를 본 밧지 못하야 제공을 의리로 더첩지 아니
하고 탐학 불법하야 지물을 구함이 그 지업는 고로 공등이어 그 공을 건디지 못하야 무리
를 모디여 탐관오리로 더 부러 성명을 결으니 일시는 비록 패활하다 하느 엇지 장구량척
이라 하리 오비유하건디 고기가 마속에 노닐고 제비 장막에 길드림 갖든지라 피망이 조
석에 박두하리니 식견이 잇는 자로써 볼진디 엇지 의척지 아니하리 오성현조 혁연진
로 하사 비인으로 하야 공공등을 진압하라 하시니 지금 형편으로의 론할진디 공등의 당
류 비록 오류만 이니 모다 오합지종이라 엇지 능히 조련한 관군을 더덕하리오 칼날을

한번사과면리로움을보리라과필치못할지라그럼으로비인인수만인명을구하고저
 하야리히로일으키니공등을위하야게교할진디왕스를취우쳐잡을벗고병의를바
 러서던진수지역에도라오면비인이맛당히공등이스제절박하야막중호성명을보
 존코저함이오고의로왕상을비반하려함이안닌것으로극력주달하니성상이본리에
 호성지덕이여현호신지라필연궁척히녀이사죄를사하리니대덕지혜잇는것은전
 화위복하고용망이잇는자는반피위공하니공등이성도를어듣고회가금일에잇는지
 라청컨디세변성각할지어다왕호이청필에눈물을흘니며고두사왈무지흔필부가일
 시지분을익이지못하고또성명을보호코저하와만스지계를니엿스오니스스로성각
 하오니장구지척이아니라비록말고저하오니진퇴가무로하오니가위고호지세라죽
 기를무릅써와명을구차로히보존하옵더니이제대인의말씀을듯스오니폐간을드려
 다보심갓스온지라감읍호회포를엇지견디리잇고왕현이구버살피사디인이금씩갓
 호신의론을배푸러성로를지시하오니이는우리등의지성지추라하히갓은은덕을성
 스간에엇지감히잇치오릿가복원대인은성현조제조히진달하사스죄를면할게하
 면즉시회심역여하하고과천선하야병의를바리고농도에도라가서안분락업하야다
 시화외지망이되지아니라하거늘상셔다시조흔말로위로하니왕호등이감격하
 야잔치를비설하야상셔를관디하려하거늘상셔만류하야왈일문전과일립속이그
 디등의근력기중하야작만하바아니오모다인명을살히하고과가갑사하야어든바

어늘니엇지참아입에너호리오호디왕호등이참피하야청사함을마지아니하거늘
 상셔즉시본진에도라와던폐에표를올녀왕호등의죄를용사하심을청하니던조보
 시고대열하사갈오사디운과병기에피를흘니지아니하고여러히경화하던도적을일
 조에항복하오니비록넉명장이니엇지능히이에서더하리오하거니고인하야조척을
 나리우사도적의죄를사하거니고전곡을뫼터주어고향으로도라가게하거니고왕호등심
 여인은각기지능을싸라버살을맛기시니도적이현을감격하야눈물을흘니고호터
 저갈시상셔다시효유하야왕호등이역던지죄를지엇스되성상이다스리지아니하
 시고도리여과망호조척을나리사전곡을주어보닉시니그은혜엇더하다형언키어려
 운지라초후에만일다시망녕된성각을품으면성상이웅디치아니설뿐아니라던디신
 명이또한돕지아니시리니갑히성각할지어다호디도적이무수히절하야불감함을일
 컷고셔로잇그러가더라상셔회군하야왕성에이르러옥계에복디하오니상이반기사
 왕스에근로함을위로하거니고버살을도드사금조광록대부우승상검집현던디학스를
 하거니고금은취단을만히상스하거니며출전하엿던장졸을후히상사하거니제장군졸
 이말한번달닌수고로움이업시후상을밧으미모다깃버하야성덕을칭송하는소리던
 디진동하더라상셔현을축사하거니본부에도라와승상량위제보인후리소서처소에
 이르니소서문밖게나와깃거영접하야전진에수고로움을위로하거늘상셔사례
 하야왕부인의가라치심을현입스와대적을항복하와왕명을육보이지아니하오니엇

지갑사치아니호오릿가소저—손사왈첩이무슨공이잇스릿고이는모다군주의던성
 이강명하사종간여류하심이로소이다하니추후로상셔의리소저를이종함이더욱비
 홀떡업더라이로쫓츠스방이무스고우순풍토하야오곡이풍등하야만민이겨양가
 를불으니진키백성이무스흔이관역무스흔지라조야—승평을필기니요순의도유지
 치를다시불러라이러구려세월을보니더니광음이류민하야어는덜팔년성상을지니
 니오왕부하의향년이철십스제라이히팔월에우연득병하야수일을신음하다가임
 연귀련하시니리소저—런디망극하야초종양례를지성으로지니니련조—또한레관
 을명하사치제하시고리소저의게도문하시니소저—망극한중예련은을못니축사하
 더라삼년초도를받들시이웨흔이과도하야일월이갈스룩더욱이동하야병이날듯하
 니학스와즈녀를민망히녀임을마지아니하고원근천척은그효성이출련흔을청송하
 지아니리업더라그후스년을지니여포덕후부부이어기제하시니학스와두소저의이
 웨흔이레도에지니더라이제에리소저는오즈이녀를두고한소저는삼즈스녀를두엇
 습이모다명공거경으로련인하야슬하의락이극하더니학스부부나히팔십삼세에일
 스흔홀연은무스면에즈옥하며붉은괴운이집에가득하교향니축비하더니운무것치
 미학스부하씩일승련하리라다만공중으로풍류소리요량할뿐이어늘즈녀등이망극
 하야공중을우르러동곡하교의관을거두워선산에안장하니그신괴흔소문이스히에
 전함이모다일으기를옥경선관이인간에덕강하야신괴흔일을세상에유전함이라하

더라이후로즈손이게스승스하야총효를송상함으로혀스흔일함이여러디를전하교
 스환이쓴치지아니하교명인달스가종스하야강남의데일화죽이되니이는운학스와
 리소저의총효렬을힘쓴소치라하날이어진스람을무궁흔복록으로주신다함이허언
 이아니러라한소저는즈손의영화를극진히누리다가세상을바리니향년이팔십팔세
 러라리소저의괴이흔스적과감복할만흔일이이외에도더잇스니괴록하기지리하야
 대강전하느니허탄하다일으지말지어다또자미가폭스쏘다져잠잘줄을몰으는소
 설이잇스니급스히견지동덕창서원으로주문만하시오자보시오,박씨덕목각,전슈
 지전,월세계,삼성괴연,삼성괴,인향전,만고절창,무쌍괴합,총명흔아히영
 리흔녀즈,현슈문전,고독각씨,콩쥐팍쥐,한후릉전,서동지전,치련전,류
 황후,음양염라왕전,주원장,고려티토,침향루,강유실괴이외에도신구소설
 이오백여종이요기타사셔오경과참고서로니외서적이무궁무진하와다

무삼척이든지전지동팔십번디대창서원으로주문
 흥시오

不可不讀의 六種書籍

讀하라! 現時代要求의 適切한 不可不讀의 好評讀々此六種書籍을!

▼吾人の成功은 文化發達의 在하고 文化의 發達은 新舊書籍의 在함 ▲

通俗 農業指針 定價金 八十錢 郵料金 六錢

本書는 農事에 關한 一切改良方針과 諸般注意事項을 詳論하고 特別 養蠶製絲桑樹栽培의 要訣을 添載한 冊子이니 正是 農家 必須의 寶典이라 天與의 農產國인 朝鮮同胞여 速々購覽하시오?

興武王三韓傳 定價金 一圓 郵料金 十錢

新羅武烈王時의 東國名將 金庚信公의 一世記와 三韓當時의 搖亂을 風靡의 大要로 編輯한 冊子이오니 聰明穎悟하시야 天地를 幹旋하는 有史以來未曾有의 大英傑은 果然如何요?

佛敎大典 定價金 八十錢 郵料金 八錢

本書는 釋迦世尊의 經律論을 基礎로 하여 衆生의 智德을 啓發하고 導導聚錄한 것으로써 各菩薩의 所究論文을 纂入하여 開卷一覽이면 無量清淨의 道를 覺得할 만을 修養必要의 好書籍!

▼三冊以內를 注文을 실時는 必히 先金을 付送請求하시오 ▲

內外萬種의 新舊書籍과 品質優良한 各種萬年筆은 必히 新明書林으로

實用 農工藝指南 定價金 四十錢 郵料金 二錢

農工商業의 何者를 勿論하고 大小企業의 方策이 珍奇한 奇蹟을 示하고 弱小한 資金으로 意外의 大成功을 可得한 二百五十餘章의 實用最適의 秘訣이니 成功을 促進케 하고 失敗를 退却케 하는 其何에 在하시리오?

天下 天然의 曲 定價金 四十錢 郵料金 四錢

半島江山의 詩人名士數百名의 大傑作인 天然神祕의 風月妙曲이 此書一部로 集中되어 있으며 可히 吾人으로서야 吾吟咏一曲이면 憂愁思慮와 喜怒哀樂은 春雪과 如히 溶解되고 無窮을 快樂과 壯大한 意氣를 換發케 하시리로다

營業指南 定價金 三十五錢 郵料金 二錢

本書는 實業大家 金光濟氏의 名著로 現下朝鮮商工業界의 最適한 唯一의 好指針이니 上中下三層의 分界와 營業의 順序原則이 明瞭하며 要의 詳細한 敘述은 勿論이오 營業者의 心身作爲를 驚勸케 하는 作業第一의 無形의 資本은 此書의 在하시도다

大正十一年十二月五日 印刷
大正十一年十二月十日 發行

(李鳳彬傳)
(定價金貳拾五錢)

古代 小說 李鳳彬 傳

版權所有 不許複製

京城府堅志洞八十番地
著作兼 發行者 玄公廉

印刷者 朴仁煥
京城府元町一丁目五二番地

發行所

京城路二丁目七七番地

京城書館

印刷部 新明書林 印刷所

總發行所

京城鐘路二丁目
電話一五五番
振替四八五九番

新明書林

京城鍾路 新明書林 主金在義
電話一五一四番 振替京城四八五九番

